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제1737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협력업체 부담
실익없는 주말의무휴업제에 골목상권·대형마트 불만 가중
소비자 피해 더하는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남발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당초 유통 대기업을 규제해 입점업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서 규제 칼날이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입점업체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제시와 상황 분석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남발하다 보니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을'이 오히려 피해의 파편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의 실효 없는 주말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동 비판을 받는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론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원성까지 듣고 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5년간 정부의 주말 의무휴무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실익이 없는 규제라는 게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만나 주말 휴업 대신 주중 휴업으로 변경하자며 대안을 찾아나선 것이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5년이 지난 지금 골목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비자 불만만 높였다"며 "평일휴무제 변경에 대해 대기업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불법 파견이라는 고용부의 결론도 가맹점주나 협력업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고용하면 임금이 올라 가맹점주의 부담금이 높아질수 있는 데다 제빵기사를 관리하던 협력업체도 문을 닫아야 한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낸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가맹점 간 도급계약이 무효화되는데 본사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는 등 또 다른 고강도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첨단안전車 보험료 11월 일제히 낮춘다

동부화재 이르면 내달 상품 출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1월 첨단 기술장치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일제히 낮추기로 했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손보사 11곳과 보험개발원에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위험도 분석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권고한다"며 "11월까지 관련 상품이 개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손보사, 보험개발원과 함께 '첨단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보험료 할인 관련 협의'를 진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비록 '협조'라는 표현을 썼으나 보험업계는 국토부의 권고를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손보사 대부분이 11월 중으로 관련 상품의 출시 계획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내달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손보사마다 진행 중인 상품들을 살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은 데이터 분석과 함께 보험료율 관련 연구를 마친 상태다. 특히 동부화재는 이르면 10월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특약'을 선보였다. 악사손해보험도 다음 달 8일부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을 설치한 차량에 최대 2.4%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갈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 육박

단기유동자금 7월말 987조 최고
투자 선순환 방치땐 폭탄 될수도
기업·스타트업 투자로 유도해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단기유동자금이 사상 최고 수준인 1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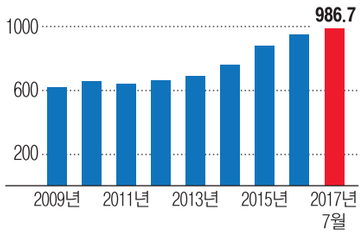
과도한 유동자금을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방향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정책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단기유동자금 규모는 987조 원이다. 시장에서는 8월 말 전후로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 현금성 자산과 6개월 내 유동화가 가능한 단기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단기유동자금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함께 급증했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것도 규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과도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로 선순환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가 6월 말 138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서는 기이한 구조를 타파하려면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대기성 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현금 보유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유동자금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 당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국 하우스푸어 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과거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부동산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했다.

부풀어오르는 단기유동자금을 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명제는 어제오늘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레버리지 및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사모 제도 개선, 적극적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사전적 조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욕(미국)=뉴시스

"北 돈줄 끊겠다" 韓·美·日 정상 '고강도 제재' 공조

트럼프 "北 거래 기업·은행·개인 제재…中 동참 시진핑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의 고강도 대(對)북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과 혈맹관계였던 중국까지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데 동참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새 대북 제재안을 공개하며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에 제재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보조를 맞춰 기자회견을 가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 세계 금융기관을 향해 미국과 거래를 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트럼프가 새 제재를 발표하기 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국 시중은행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이미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런 인민은행의 조치를 언급하며 "이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 매우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조치"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계의 제재를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CESS 기후변화 대응 녹색지구를 위한 약속 - 시리즈 4회 ▶6

이슈 & 인물 ▶13



안병옥
환경부 차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트럼프 "美·北 양자택일하라" 각국 정상 面前서 '계산된 압박'

유엔총회서 北 추가제재 발표 왜

"섬유·어업·IT 등 새로운 제한 가할 것"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 시행
"모든 국가와 北고립 협력" 발표 배경
"세컨더리 보이콧 中 겨냥 아니다" 해명
"매우 위험한 발언" 일각선 우려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새 제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는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도 포함됐다.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유엔 총회에 맞춰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그는 "새 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부문에서 중요한 무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미국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섬유와 어업, IT와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한을 가할 것이며 제재 회피를 막고자 북한의 해운과 무역망을 겨냥한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유엔 총회에 맞춰 대북 제재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모든 국가가 김정은 정권 고립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관계를 끊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므누신 장관은 '새 제재에 북한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피해를 크게 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새 제재는 오직 북한,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또 우리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와 이날 오전 대화를 있다.

나눴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자살임무를 맡은 로켓맨'이라고 비꼬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외교무대에서 매우 드문 직설적이고 강경한 발언으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의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19일 "트럼프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외교가 김정은의 무기 시스템에 고삐를 채우게 하는 첫 번째 무대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는 이미 지난해 "북한이 트럼프의 최대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총리(왼쪽부터)가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더욱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명확한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대북 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 합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김정은 "北 완전파괴? 포악한 선전포고"

美 유엔 연설에 성명발표… 中 "北, 더는 위험한 길로 가지말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직접 경고를 날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19일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반발을 예상하고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를 심고(고심)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전처럼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던 것과 구별되는 틀에 박힌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고사하고 '완전 파괴'라는 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히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1일 북한을 향해 "더는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그는 "북이든 남이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왕 부장은 "대화와 협상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총수 2세 지분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다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집단 내부거래 현황
거래비중 SK·거래액은 현대차 가장 높아

총수 2세의 지분율이 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SK 등이 차지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27개 대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10조 원 집단 제외)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 21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로, 총수가 없는 집단 6곳(10.9%)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총수 있는 21개 집단 소속 계열사는 863개사로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33조8000억 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의 89.8% 수준인 120조2000억 원 규모였다.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 등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22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비상장사인 계열사 850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2.3%로 상장사 171곳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은 비례관계가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다. 지분율 100% 기업은 66%였다. 이는 지분율 100% 기업 내부거래의 전년 비중보다 6.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10.1% 비중과 비교해도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는 27.6%다.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20%)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5월 기준 96개사로 7조5000억 원의 내부거래 금액을 기록했다. 전체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내부거래 없는 회사 포함)는 631개사(61.8%)다. 30% 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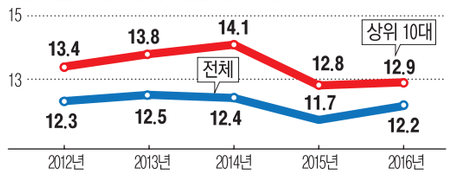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로 23.3%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포스코 19.0%, 현대차 17.8%, KT·LG 15.2%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가 30조300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했다"며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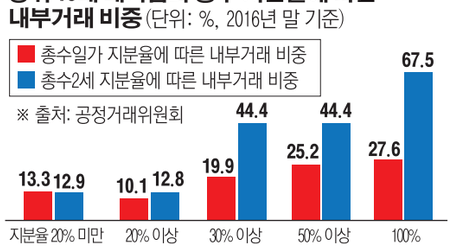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총수가 있는 집단 전체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후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규하 기자 judi@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추이(단위: %)



상위 10대 대기업의 총수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단위: %, 2016년 말 기준)





홍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바이탈뷰티 명작수

100세를 사는 시대, 당신의 인생은 아직 한창때죠
길어진 인생 끝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홍삼의 온전한 생명력으로
신체 본연의 생기를 되돌려주는 바이탈뷰티 명작수
당신의 몸에 활력을 채워 오래오래 유지되게 합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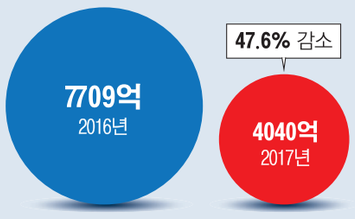
VITALBEAUTIE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 080-023-5454

“다음달 공급물량 반토막”… 기아車 협력사 ‘잔인한 가을’



기아차 2분기 영업이익 (단위: 원)



기아자동차 잔업 근무 변경

*8+8시간 2교대 근무(30분 잔업 포함)

구분	현행	9월 25일부터
근무시간	1조: **10분** 2조: **20분**	중단
퇴근시간 (광주공장 기준)	1조: **오후 3시 50분** 2조: **0시 50분**	**오후 3시 40분** **0시 30분**

통상임금 후폭풍 덮친 기아차

“차라리 덜 일하자” 기아차 고육책
25일부터 잔업 없애고 특근 최소화
中 판매부진에 생산량 조정 불가피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도 늘어

“가뜩이나 힘든데” 협력사는 눈물
“잔업·특근 사라진 지 이미 오래…
공급량 더 줄면 기계 멈춰세울 판”
中 진출 협력사 사업포기 잇따라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줄이기로 하면서 1·2차 협력사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아차의 잔업과 특근이 줄어 차량 생산량이 조정되면 그만큼 납품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이미 공급물량 줄어든 상황에서 1·2차 협력사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2일 기아차에 따르면 중국 판매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하고, 통상임금 소송으로 특근·잔업시 수익성 확보가 힘들다고 판단해 25일부터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근무시간은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 50분, 2조 오후 3시 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 40분, 2조 오후 3시 50분~밤 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이번 잔업 중단 결정으로 기아차의 생산량은 연간 4만1000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연간 약 150만 대에서 3% 수준이다.

잔업과 특근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인기 차종의 경우 고객 인도 기간이 늘어나 차량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아차의 결정에 힘이 빠지는 것은 협력사들이다. 특히, 2차 협력사들은 공급 물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영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2차 협력사 관계자는 “올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순환휴직을 실시하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기아차가 추가로 생산량을 줄이면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 2차 협력사의 경우 이미 10월에 공급해야 하는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통상임금으로 인한 기아차의 추가 생산량 감소가 이뤄지면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라도 멈춰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2차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실질 임금 감소 도미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관계자는 “올해 사드로 인한 기아차의 판매 부진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잔업이나 특근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기아차 근로자들조차 받지 못할 잔업·특근비를 2차 협력사 근로자들이 기대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협력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진출한 기아차의 1차 협력사 관계자는 “판매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며 “주재원이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 부품사의 경우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줘야할 월급 지급이 미뤄진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체는 직원들의 임금도 10%가량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히 해당 기업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협력사와 소비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당국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대형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효과없는 정책에 뿔난 상인들

“마트 쉬면 온라인 쇼핑몰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실효성 떨어져”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가맹점주 임금부담 늘고 가격인상 우려

정부가 내놓은 ‘을의 눈물 닦기’ 규제에 오히려 ‘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효과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에 소상공인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협력업체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중소유통 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것과 전통시장 부활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한 것.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처음에는 대형마트를 죽이면 우리(골목상권)가 살 줄 알았지만 대형마트가 휴업하자 소비자들은 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며 “막상 규제가 시행돼도 우린 여전히 어려워 정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수산업 생산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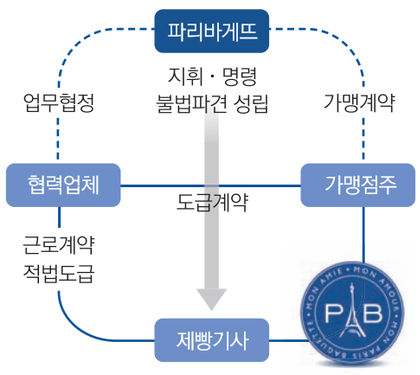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문제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입점한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롯데몰 등 아웃렛은 협력업체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20%에 그치며 80%는 소상공인 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을 위한 보호가 역설적으로 을이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 5378명의 제빵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제빵기사를 무리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고 빵 가격이 올라 이는 곧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협력업체는 당장 회사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파리바게뜨-협력업체 등 불법파견 계약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매장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본사에 소속된 제빵기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사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유통업계 일자리 창출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롯데는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으로 알짜배기 점포인 서울역점과 영등포역점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천명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임차상인 100여 명은 국가귀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빠졌다”면서 “수천명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 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 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8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文대통령, 유엔외교 마치고 귀국길

해외투자자 만나 北核우려 불식 코리아 세일즈·평창 올림픽 홍보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끝내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현장인 유엔총회에 데뷔,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했다.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우방국 간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 획득과 개발에도 동의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대표단을 응시하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촛불민심'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을 알리고 '4강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유럽·아프리카 국가 등 각국 정상들과 만나 대북 제재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의 외연을 넓히는 성과도 거뒀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유력 투자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경제정책과 현안에 대해 직접 질의응답을 하며 '북핵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하는 등 '코리아 세일즈'에 공을 들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만나는 정상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향한 관심을 당부하고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올림픽 달성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한 점도 이번 방미 성과로 꼽힌다. 22일 밤 서울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여야 대표들에게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 재개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총회연설 맨 앞자리에 北대표단



북한 대표단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명수' 넘은 국회, 입법·국감 앞으로

한숨 돌린 與 '협치' 중요성 실감 보수야당, 주도권 공세 이어갈듯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얼어붙은 정국이 다소 풀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입법 추진과 국정감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김 후보자 부결을 외쳤던 보수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국회 과반인 가결정족수 150표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있다. 당초 확실한 찬성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30표였다. 그런데 개표 결과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은 160표가 나왔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성상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지만, 25표 이상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한숨 돌렸지만 여소야대의 위력을 절감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떤 구도로 협치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을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곧바로 열자고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전 대표는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정당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는데, 이번에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총 11조 중 집행률 73.2%, 추석前 목표치 초과달성

8월 고용지표 악화…기재부 "청년실업 해소에 총력"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석 전 집행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추경의 집중적인 집행에도 고용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제9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추석 전 추경예산 집행 목표(70%)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한 각 부처를 격려했다.

올해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45일 만인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뒤 집행을 시작했다. 추경예산 규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안(11조1869억 원)보다 1536억 원가량 감액된 11조333억 원 규모로 소폭 줄었다.

이 중 농·지특 결손보전 8000억 원과 국채상환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9조6000억 원 규모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달 20일까지 집행된 추경예산은 7조 원으로, 집행률은 73.2%이다. 이는 당초 추석 전 집행 목표 70%(6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을 초과해 집행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지표는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21만2000명에 그쳤다. 청년실업률은 동월(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 명대에 진입하는 등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이날 김 차관도 추경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취업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또한 추경절차를 완료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창균 기자 yangck@

ASEM 경제장관 한자리에



이낙연(앞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백운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득세 최고구간 하나 더 만들 수도

7억이나 10억 초과에 추가세율…법인세율 마지노선은 25%"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각각 2%씩 올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쪼개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7억 원 초과, 혹은 1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2%+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단 뜻이다.

김 의장은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최고세율 25%'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이 계속 늘어나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의 마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직전 단계까지로의 환원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B정부는 2009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입장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쌀값 안정·수급 조절 위해 햅쌀 30만톤+α 시장격리

내주 확정…50만톤 이상 관측

정부가 쌀값 안정과 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물량을 다음 주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50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한 쌀은 164만 8000톤 규모에 이른다. 변동직불금으로는 총 5조371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29만9000톤을 시장격리 조치하고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 톤, 수요는 370만 톤으로 30만 톤가량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요 초과분 3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확기가 되면서 기후 조건이 좋아져 수확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쌀값을 80㎏에 15만 원대로 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 물량도 당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포함한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농정당국이 쌀값을 15만 원 수준으로 올려 변동직불금을 줄이려면, 5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 시장격리 비용보다 변동직불금 감소분이 훨씬 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물량별 쌀값을 △25만 톤 12만4569원 △30만 톤 13만6760원 △35만 톤 13만9981원 △40만 톤 14만3331원 △45만 톤 14만6816원 △50만 톤 15만445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정무위 8.4%·환노위 9.8%…법안처리율 평균이하

20대 국회 법안 발의 1만건 육박…통과된 건 16.6% 그쳐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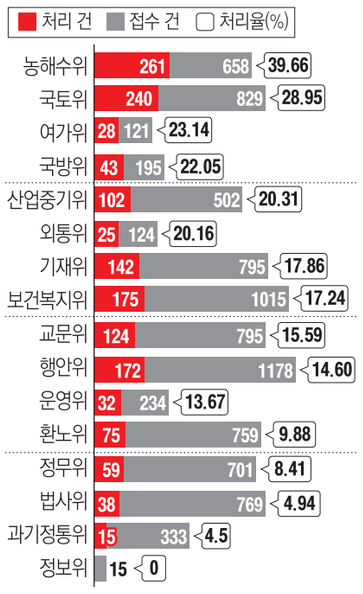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별로 보면 법안 처리율의 편차가 극명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처리율이 39.6%에 달하고, 국토교통위도 28.9%다.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1000건이 넘어도 보건복지위는 처리율이 평균을 웃돌고, 행안위는 밑돈다.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못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환노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김미영 기자 bomnal@

20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22일 오전 9시 기준)



하성용 구속 여부가 KAI 수사 분수령

檢, 前 대표 영장 청구
뇌물공여·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협력업체 차명주식 보유 일부 시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사진)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성용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번 KAI 방산비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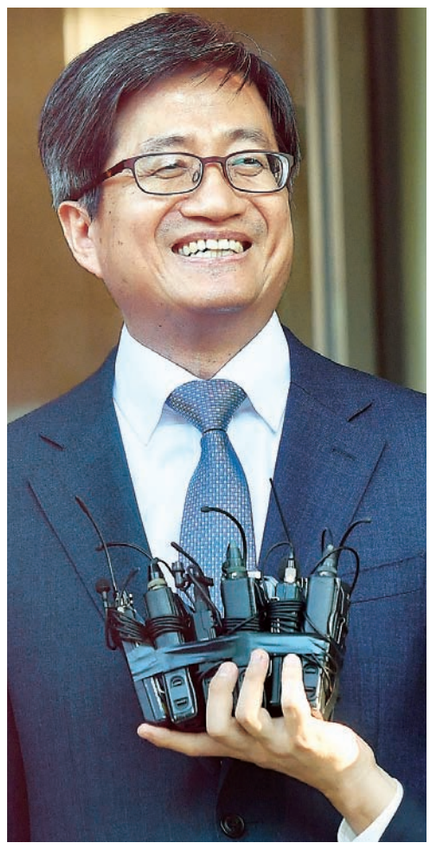
한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 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 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차명주식 보유를 어느 정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하 전 대표가 100억 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하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아래 직원들이 한 일이며 자신은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KAI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 전체 6건 중에는 4건이 기각됐다.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2차례 기각됐다.

안철우 기자 acw@

김명수식 사법개혁 시금석은 '人事'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대법원장 임명 후 과제
내년 바뀔 대법관 6명 구성 다양화
법관 관료화 부추기는 행정처 축소
'인사 희생양' 고법판사 갈등 줄여야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질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취임 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보이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원행정처 축소,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이 지적된다.

우선 새로운 대법원장은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제청할 권한을 갖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 뒤 제청권 행사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사다.

법원행정처 축소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역할이 비대해진 법원행정처는 법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일선 판사들은 인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조 판사'로 불리는 고법판사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항소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고법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지법과 고법 인사를 따로 하는 '법원 이원화'와 함께 자리잡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이 제도 시행을 주저하면서 고법판사들이 인사의 희생양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 약속도 깨지면서 판사들의 불신이 커졌다.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해와 올해 퇴직한 고법판사 수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법원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역할도 남았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일련의 일들로 판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감정이 상했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추석 前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푼다

국세청, 260만 가구 평균 78만원 지급
전체 가구의 10%…5월 신청자 중 선별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으로 평균 78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5월에 신청 가구다. 가구 수는 작년과 비교할 때 33만 가구, 금액으로는 131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92만 가구가 5491억 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 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 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 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 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이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 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11일부터 입금하고 있다"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법원 "불륜 파문 前 권익위 청렴연수원장 해임 정당"

부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 권익위 청렴연수원장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며 "자신은 B씨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 제기는 비위행위 이후 B씨가 A씨와 그의 처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B씨 행위가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A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렴연수원장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권익위 청렴교육 총괄 책임자로 국민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신격호 감금'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 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왔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이 감금 당한 상태나 다름 없다", "신 총괄회장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롯데 측 경영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민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기후변화 대응

녹색지구를 위한 약속

글 싣는 순서

1.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신기후체제 출범
2. 기후금융의 필요성과 활성화 대책
3. 탄소배출권 거래의 현주소
4. **기후변화 대응,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5. 기후변화 파수꾼… 국제기구들
6. 그린에너지 미래를 향한 CESS의 역할

신재생에너지에 꽂힌 기업들
AI 접목 '스마트 그리드' 生態系 구축

〈Smart Grid:지능형 전력망〉

한화, 주력사업 태양광 글로벌 선도
LG도 태양광 모듈·ESS 사업 확대
KT, 세계 첫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

삼성전자, IoT 기반 스마트빌딩 사업
포스코, 스마트공장·전기차 사업 박차
LS산전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 주도

"우리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술혁명이 눈앞에 와 있다."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후로 전 세계 산업계는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그동안의 산업혁명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인류의 최대 과제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에너지 기술이 정보통신, 전자, 화학, 바이오 등 연관 분야 신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은 에너지 기술과 융합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전 세계는 '에너지 4.0' 시대로 서서히 진입 중이다.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앞서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다. 독일이 2012년부터 진행한 '인더스트리 4.0'이 대표적이다. 가상물리시스템을 구축해 생산환경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제조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0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 6870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기후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신성장 먹거리로 잡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신기술을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꽂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ESS의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25억6000만 달러에서 2020년 150억 달러, 2025년 29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인 ESS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꼽은 한화그룹이 대표적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한화에너지 → 한화종합화학 → 한화큐셀·한화솔라파워 → 한반도·영암테크노·영암해오름·하이패스·해사랑태양광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전무는 2011년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을 거쳐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 한화솔라원 영업담당 실장을 맡으며 태양광 사업을 직접 맡아왔다. 특히 2015년에는 한화큐셀 영업실장(상무)을 맡아 5년째 손실을 내던 회사를 흑자로 돌려세웠다.

LG그룹 역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가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생산, 판매하고 LG 서브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G CNS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결합한 한국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다.

통신기간망 사업자 중에는 KT가 ESS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MEG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엔진 e브레인이 탑재된 세계 최초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이다. 태양광·풍력·디젤발전기 등 다양한 발전원과 기기들을 동시에 병렬 연결해 통합 운영과 맞춤형 ESS 컨설팅과 종합 솔루션 확보가 가능하다.

◇IoT로 에너지 아낀다=삼성전자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IoT 기술 기반 스마트 빌딩 솔루션 'b.IoT'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b.IoT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공조·조명· 네트워크·보안 등 다양한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빌딩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삼성전자의 B2B솔루션이다.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를 감안한 냉난방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제어가 가능해 기후 데이터 분석, 재실자의 착의량과 활동량을 고려한 쾌적 온도 산출, 과냉난방 방지 등으로 알고리즘 미적용 대비 최대 25%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IoT의 대표적 응용 중 하나로 전력 부문에 정보·통신·디지털 제어기술이 결합되는 산물인 스마트 그리드는 LS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LS산전은 전력과 자동화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에 ICT를 적용한 융·복합 스마트 솔루션을 앞세워 소규모 지역의 전력 자급자족을 돕는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도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 공장 곳곳에 IoT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매일 1테라바이트(TB)가 넘는 데이터를 새롭게 모으고 있다. 빅데이터와 IoT 활용 효과는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기 전인 2015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품질 부적합률이 20% 이상 줄었다. SK이노베이션도 차세대 핵심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스마트 공장)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국내 충전기 관련 업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ICT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로, 현대차와 BMW, GM의 전기차 충전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100기를 설치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에너지 4.0 주요 기술과 적용 방안 ※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정책 (산업연구원)

기술 구분	적용 방안
가상물리시스템	센서를 활용해 생활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제어함를으로써 사람, 건물, 설비 등의 네트워크 통합화를 통한 에너지 최적화
인공지능 에너지 수요관리	인공지능 에너지 ICT기반 전사적 체계관리로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흐름 및 사용의 시각화와 효율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Internet of Energy	분산화된 에너지 수급. 유연하고 지능화된 소비자 수요 반응. 분산형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ICT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사물 인터넷 또는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홈 오토메이션 및 분산형 전원 기술, 지능형 송배전망 관리시스템 등의 적용
3D 프린팅 활용 산업	3D 프린팅을 활용해 설치공간 및 형태를 고려한 태양광 모듈 제작. 셰일가스 수압파쇄법 개발
유비쿼터스 에너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공급형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일상생활에서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은 작은 에너지를 모아 사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기술. (압전효과, 광전효과, 열전효과 등)



캐멀 벤 나세르 국제에너지기구 실장

글로벌 에너지 분야 35년 '잔뼈'… 튀니지 産業장관 지내



세계 최대 유전·자원관리 회사 근무
2006년 OECD 산하 IEA로 옮긴 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개발에 힘써

이투데이가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기후-에너지 회의 2017(CESS 2017)' 행사에 캐멀 벤 나세르(Kamel Ben Naceur·사진) 국제에너지기구(IEA)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벤 나세르 실장은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CESS 2017'에 참석해 '새로운 기후경제 시대의 위험성과 기회'라는 주제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닉 너톨(Nick Nuttall) 유엔기후변화협약 대변인,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롭 파울러(Rob Fowler) 기후본드 이니셔티브 투자실장과 토론을 한다.

그가 일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독립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주요 부속기구(준 독립기구) 중 하나다.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협력 촉진을 목표로 1974년 11월에 설립됐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벤 나세르 실장은 IEA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했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접근 방법을 현대화하고 첨단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인물로 유명하다.

벤 나세르 실장은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서 35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프랑스 최고 교육기관인 에콜폴리테크니크와 에콜노르말쉬페리외르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1년 세계 최대의 유전 측정과 자원관리 서비스 회사인 슐룸베르거(Schlumberger)의 연구·개발 부문에 합류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유럽, 러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이동했다.

벤 나세르 실장은 2006년 IEA 에너지 기술 전망부서로 회사를 옮겨 산업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한 간행물을 작성하는 일을 했으며, 2007년에는 IEA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부에서 활동했다. 2009년에는 슐룸베르거의 수석 경제분석가로 선임돼 연구활동을 진행했고, 2011년에는 슐룸베르거 기술 총괄 임원으로 지명됐다.

2014년에는 튀니지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광산 장관을 지냈다. 재임 기간에는 에너지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고, 재생 에너지 구현에 관한 법률을 승인받았다. 정부 임기가 끝나고 그는 IEA로 돌아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및 기술 개발 담당 실장이 됐으며, 현재 수많은 조직에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Seoul Climate & Energy Summit (CESS) 2017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주제 :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전환 전략
2017년 9월 28일 (목) 08:30~18:30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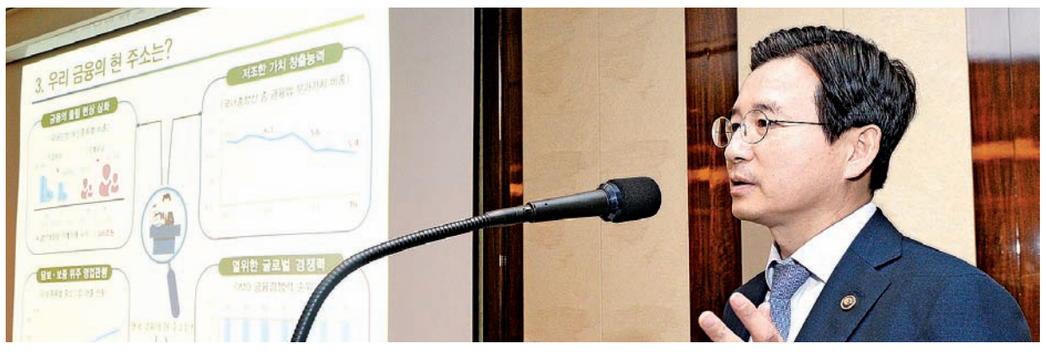
해외 연사



캐멀 벤 나세르 (Kamel Ben-Naceur)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속가능성, 기술 및 미래예측' 담당 (前)실장
더크 포리스터 (Dirk Forrister) 국제배출권거래협회 (IETA) 회장
닉 너톨 (Nick Nuttall) 유엔기후변화협약 대외협력실장 겸 대변인
토마스 헬러 (Thomas C. Heller) 기후정책이니셔티브 (Climate Policy Initiative) 창립자 겸 고문
마후아 아차리아 (Mahua Acharya) 글로벌 녹생성장연구소 (GGGI) 사무차장 겸 투자 및 정책대안 담당 책임자
브리지트 불르 (Bridget Boulle) 기후본드 이니셔티브 (Climate Bonds Initiative:CBI)시장분석실장
필립 로우 경 (Sir Philip Lowe)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에너지 Trilemma 연구프로그램 의장

공동주최 기후변화센터 CLIMATECHANGECENTER etoday MEDIA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회기후변화포럼 KRX 한국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가신청페이지 http://www.etoday-cess.com
참가신청문의 02)799-6782 jaegus@etoday.co.kr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미래.
EV
ESS
전기차 배터리 / 부품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빌딩 시스템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LG



21세기 금융의 미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 비전포럼'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시작부터 손발 안 맞는 금감원 자문委

첫 회의 과제 보험사 카드결제 확대
배포 자료서 오류 발견…신뢰도 뚝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1일 금감원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예고했던 직속 기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두 가지가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보험료 카드결제납 자료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 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납 취급 현황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 실제와 다르게 카드결제납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잘못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전체 채널에서 신한·삼성·KB국민·NH농협·BC카드를 납입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ABL생명으로 변경한 알리안츠생명 사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다.

단순 실수로 여길 수 있으나 최 원장이 직접 챙기는 자문위가 출발부터 빈틈을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자문위에서 카드납 결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첫 과제는 자문위 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감원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항목 중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카드결제납은 예전부터 논란이 오갔던 사안이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면 수수료가 발생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적금을 들 때 카드결제를 안 하지 않나"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만큼 금액이 큰 데 이것 역시 카드결제를 하라고 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IFRS17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 카드결제납이 모든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과제는 결국 카드사들만 배를 불려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는 연초에 파악했던 사안이라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과제를 놓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성추행자 재취업은 꼼수 하나銀 시스템 改善하라"

노조 측 민원 제기에 금감원 조사 나서
퇴직자를 계열사 재채용 후 복귀 시켜
'과정상 문제' 지적…재발 방지책 촉구
"성추행 의혹은 소관 밖" 현장검사 제외

금융당국이 KEB하나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추행자 재취업 민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치고 사측에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혹의 중심에 선 해외 지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성추행 의혹 퇴직자를 해외 지점장 등으로 재취업시키는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 채용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채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부당한 승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인천국제공항 하나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다 2013년 성추행 의혹으로 내부 감찰 도중 징계 없이 퇴사했다. 그 이후 이 간부는 하나저축은행 지점장으로 재채용된 뒤,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취업자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입사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별도의 현장 검사는 안 한다는 입장이다. 성추행 관련 문제는 본 업무 소관인 건전성 감독과 무관한 데다 노조가 사측 압박용으로 제기하는 이슈에 당국이 휘말리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은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거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보는 곳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팀을 꾸려 조사해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이 채용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자 인사 조치를 전제로 한다. 조치 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자 가운데 우수 직원을 재취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한 만큼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다 해도 4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사람을 모든 직원들이 희망하는 해외 지점장으로 취업시키는 곳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가진 금융사라고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금융당국, 상장사에 회계감사인 직권 지정

외부감사 개정법률안 의결…감사인 선택지정제보다 강화 '회계 투명성' 기대

앞으로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가 부실 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주기는 연속 6개 회계연도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며, 뒤이은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가 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9년 단위로 이를 반복하는 형태다.

정부는 올해 초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발의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보다 강력한 안이 통과되게 됐다. 선택지정제는 상장법인 일부만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인데, 이는 회계 투명성 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감사인을 지정받는 대상은 전 상장사로 하되 대기업집단 등 일부 예외 규정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내부회계가 우수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19년 계약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시기 전 6개 회계연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2년 후부터는 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정받게 된다"며 "다음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회계법인이 '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인 등록제도 의결했다. 등록기준 등 세부내용은 법안 통과 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감사인 등록제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 체계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만 기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외부감사법 개정안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 시점도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숙제 밀린 정기국회…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

감사인 지정제 이어 금융사 제재 확대안 등 법안심사소위 통과…본회의 처리 촉각

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밀린 숙제들을 대거 처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발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705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63건에 불과하다. 미처리(계류) 법안 비율이 91.1%로 기획재정위(81.8%), 보건복지위(82.5%), 국토교통위(70.6%)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영업이익이나 처벌과 연관돼 목줄을 쥔 법안들도 본회의장에 가게 됐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서는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익으로 처리해 온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할 금액만 50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상장사의 제3자 신주배정 내용을 1주 전에 사전 공시토록 한 법안 등도 통과돼 일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구글 'HTC 스마트폰'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반도체' 인수에

'전자·IT 공룡' 삼성, 입지 좁아지나

세계 스마트폰 OS 80% 점유 구글
SW·HW 결합땐 영향력 더 커져
낸드플래시 최대 수요 기업 애플도
SK 우군 확보시 삼성 의존도 뚝

글로벌 IT업계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모바일과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업체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 잇따라 성공했기 때문이다. 전자·IT 업계 공룡으로 떠오른 삼성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변동에 따른 시장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각 사업 분야에서 벌어질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전날 구글은 HTC 스마트폰 부문 인수를 발표했다. SK하이닉스와 애플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은 도시바 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손에 얻었다. 글로벌 IT업계가 대형 M&A를 통한 새판 짜기에 돌입한 셈이다.

먼저 구글의 HTC 인수는 스마트폰 완제품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을 뒤흔들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HTC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핸드셋을 함께 출시할 경우 구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의 아넷 지머만 부사장은 "HTC는 스마트폰 노하우를 구글에 넘겨주게 될 것이며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험을 통해 자체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강하게 구축해 삼성과 애플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부문 2위 도시바와 손을 잡은 것도 이 부문 1위 삼성전자로서는 위협적이다. 일단 SK하이닉스와 도시바의 단순 점유율을 합하면 지난 2분기 기준 26.7%로 삼성전자(38.3%)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다.

더 문제는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 애플에 대한 가격 협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애플은 낸드플래시 최대 수요 기업 중 하나다.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은 애플 제품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애플은 낸드플래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삼성전자에 추가 공급을 요청하는 등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삼성은 애플에 대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왔다. 애플이 SK하이닉스와 도시바라는 우군을 확보한다면, 삼성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은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에 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애플의 도시바 반도체 인수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네이버 '자율주행車' SKT 추월

국내 고속도로 야간 주행 첫 성공
기술 SK텔레콤보다 한 단계 앞서
자율주행 레벨4 단계 진입 빠를 듯



네이버가 서울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자율주행차(사진 위)의 모습. 아래 사진은 32채널 라이다(LiDAR) 센서를 작동하며 고속도로 야간주행 테스트 중인 네이버 자율주행차의 모습. 사진제공 네이버

SK텔레콤이 자사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경부고속도로 주행에 성공한 가운데 네이버 자율주행차는 한 단계 앞선 '고속도로 야간주행'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야간 단독주행에 성공한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다.

22일 IT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네이버 자율주행차가 최근 경부고속도로 시험운행 구간에서 야간 주행에 성공했다.

네이버 측 관계자는 "도요타의 친환경차 프리우스V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가 최근 시험운행 구간에서 야간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테스트를 반복하며 야간 자율주행 적합성과 시스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자율주행차의 야간 고속도로 주행은 전날 SK텔레콤의 주간 주행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다. 야간 주행의 경우 주변 광도 변화와 차선 인지 기술, 주변 상황 감지 등 민감한 센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갖가지 주변 정보에 대한 선제 대응 및 회피 기술도 한 걸음 앞서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네이버 자율주행차는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3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몰 이후 고속도로에서 시험운행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무난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야간주행 성공은 완전자율주행(레벨4)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국산 자율주행차 가운데 야간 주행 성공사례는 2월 현대차가 밝힌 아이오닉 야간 주행이 최초다. 다만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의 경우 국내가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야간 주행에 성공한 사례다.

네이버 자율주행차는 차 지붕 상단에 전후방과 좌우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32채널 회전식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했다. 이 밖에 전방과 좌우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하는 전방 레이더 등을 장착했다.

차 지붕에 얹은 라이다는 극초단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반사파로 인해 단순 거리만 측정하던 레이더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이다. 네이버는 최근 '라이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이노비즈테크놀로지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완성차 부품기업 델파이·마그나와 함께 총 6500만 달러(약 728억 원)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 IT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통신사보다 네이버의 관련기술 확보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조성준 기자 tiatio@

국내 조선사, FSRU 시장 선점으로 中 따돌린다

〈부유식 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LNG 액화·기화 설비 갖춘 선박
中 수년 내 관련 기술 확보 못해
건조 기간 짧고 투자비용도 적어
중남미·개도국 수요 증가 예상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에 성공한 LNG-FSRU '인디펜던스/INDEPENDENCE호' 모습.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국내 조선사들이 첨단장비를 장착한 선박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중국 조선사들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여서 꽤 오랜 시간 독점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부유식 가스 저장·재기화 설비(FSRU)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FSRU는 LNG(액화천연가스) 액화와 기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선박이다. 기체 상태인 LNG는 배에 실을 때 액체로 만들어 운반한 뒤 목적지 터미널에서 다시 기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FSRU 개발 이전에는 LNG 가스 운반을 위해 육상에 별도의 터미널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FSRU는 육상 시설이 필요 없는 데다, 터미널을 짓는 것보다 건조 기간도 짧고 초기 투자비용도 적다. 이 때문에 중남미 개발도상국 등 LNG 수요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FSRU는 2020년까지 총 50척 이상 발주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FSRU 2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 또한 올해 1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2020년까지는 매년 4척에서 5척 정도는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국 조선업계는 기술이 부족해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호재다. 중국 조선업계의 경우 선박 수주량은 많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FSRU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FSRU 시장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노력한다 한들 수년 안에 FSRU 관련 기술력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수주활동뿐 아니라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월 LNG 재기화 시스템 독자 개발에 성공해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 기술이 탑재된 LNG-FSRU는 2019년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도 21일 FSRU의 핵심 장비인 LNG 재기화시스템 개발 성공을 알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 재기화시스템 독자 개발로 FSRU의 안전성과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동부대우전자, 드럼세탁기 '미니' 中 시장 공략



동부대우전자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손잡고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부대우전자는 21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미니' 신제품 론칭행사를 열었다. '미니'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타오바오에 전용관을 열고, 연길 및 오야백화점, B&Q에 입점하는 등 중국인 고객 유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제공 동부대우전자

"檢 'KAI 수사' 산업 특수성 간과"

방산업계 "채권 잔액 바로 처리 안해… 회수 문제 없어"

한국항공우주(KAI)의 T-50 이라크 수출 사업의 분식회계 수사에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KAI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AI는 2013년 이라크와 11억 달러 규모의 훈련기 겸 경공격기 T-50 24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사업 규모는 21억 달러(현재 약 2조4000억 원)였다. 현재 총누적 매출액은 1조1851억 원으로, 이라크 정부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매출의 63%인 7422억 원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은 4426억 원이며,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15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회계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나머지는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현재 IS 등 내부 사정으로 납입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은 매출채권 잔액의 회계 처리를 두고 분식회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KAI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산계약은 해당 국가 정부와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신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잔액을 바로 손실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AI가 이라크 정부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KAI는 이라크와 계약한 물량 24대 중 6대를 인도했다. 계약 물량의 25%밖에 납품하지 않았지만 회수한 대금은 63%다. 이라크가 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납품하지 않은 항공기는 타 고객으로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판매대금이 현재 채권잔액보다 높아 채권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LG화학, 美·英 대중교통에 배터리 공급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 주행
내년 출시 현대車 버스에도 탑재

LG화학이 미국에 이어 영국의 대중교통에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22일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LG화학은 영국 택시의 일종인 블랙캡을 생산하는 런던이브이컴퍼니(LEVC)에 전기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거베이 LEVC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전기 모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지에프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제너레이터, 자매기업인 볼보에서 몇몇 부품과 LG화학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라고 밝혔다.

LEVC는 기존에 있던 런던택시컴퍼니(LTC)가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후 회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 전기택시 생산 기업이다. 2017년 LEVC는 지리자동차로부터 3억 파운드(약 4594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영국 최초의 자동차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LG화학 관계자는 "LEVC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히 언제부터 납품을 시작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미국 전기버스업체 프로테라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프로테라의 '카탈리스트 이투' 전기버스다.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카탈리스트 이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50㎞ 주행이 가능하다.

LG화학은 현대자동차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전기버스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전기버스 '일렉시티'는 2010년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를 개발한 이후 8년 만에 본격 상용화에 나선 제품이다. 일렉시티에 내장되는 LG화학의 고용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1회 67분 충전으로 최대 290㎞를 주행할 수 있다. 우진산전이 독자 기술로 완성한 양산형 전기버스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 전기버스는 204kWh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한 번(50분) 충전하면 150㎞를 달릴 수 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갤노트8' 中 예판 실적 우울하네

13일부터 21일까지 9300대 그쳐
높은 가격에 반한 감정 적용된 듯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8 시리즈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흥행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집계한 아이폰8 시리즈 사전 예약 물량은 100만 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아이폰7은 250만 대, 아이폰6가 350만 대의 선주문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소비자들이 아이폰X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럭시노트8은 아이폰8 시리즈보다 사전예약 수치가 낮다. 21일 기준 중국 징동에서 사전 예약 대수는 9300대에 불과했다. 한국에서는 사전 예약 판매 첫날에만 39만5000대를 기록해 신기록을 세운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갤럭시노트8은 64GB 6988위안(약 121만 원), 128GB 7388위안(약 128만 원), 256GB 7988위안(약 138만 원)에 판매된다. 또 사전예약을 하려면 100위안(약 1만7000원)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 높은 가격과 예치금 외에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고전을 겪자 중국 언론들은 아이폰8과 갤럭시노트8의 낮은 예약률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 파즈저우모(法制周末)는 "사드 문제는 갤럭시노트8이 중국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며 "반한 정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삼성, LG, 현대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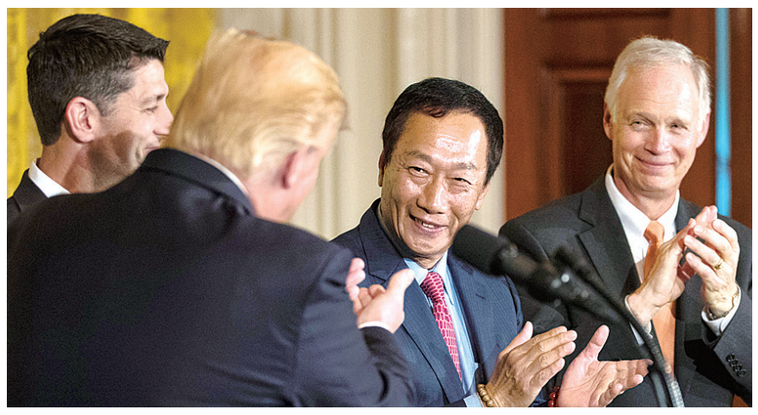
폭스콘 '중국산 꼬리표' 떼기 안간힘

美위스콘신주 거액투자 신축
'아이폰 하청업체' 벗기 전략
中 의존도 너무 크자 '해외로'
무역전쟁 와중 美관세땐 발목

7월 26일. 시장의 관심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으로 날아간 궈타이밍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회장에게 쏠렸다. 궈 회장은 이날 위스콘신 주에 100억 달러(약 11조3400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 1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해외 기업에 미국 투자를 으름장 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눈치 보기' 투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궈 회장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아이폰 제조 하청업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궈 회장의 대규모 해외 생산기지 건설 공약은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폭스콘이 6년 전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폭스콘은 6년 전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도시 이투(Itu)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 이 지역에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브라질 경기 침체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국 혼란 등으로 당초 브라질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세금 감면 방안이 흐지부지됐고 이후 폭스콘은 미국행을 결정한 것이다.


궈타이밍(오른쪽 두번째) 폭스콘 회장이 7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과 함께 위스콘신 투자 계획 발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AP뉴시스



폭스콘이 이처럼 중국 밖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느라 부심하는 이유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폭스콘의 전체 인력 110만 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폭스콘은 현재 선전 본사에서 애플의 맥과 주요 고객사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충칭, 청두, 정저우 등 중국 곳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아이폰과 PC 등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신경전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이 자칫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역제재에 나선다면 폭스콘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내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중국 생산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폭스콘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이에 폭스콘은 2009년부터 베트남과 인도를 포함해 아시아 곳곳에 제조라인을 건설해 중국의 생산라인을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과 수출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NYT는 폭스콘의 해외 생산라인 건설과 투자가 해당 국가와 폭스콘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폭스콘은 해당 지자체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요구,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폭스콘은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각종 지원 정책으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투자의 경우도 거액의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진행됐다. 18일 위스콘신 주 스콧 워커 주지사는 폭스콘에 대한 30억 달러의 세금 감면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하지만 위스콘신 내부에서는 폭스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미국 입법 재정국은 보고서를 통해 폭스콘 투자 유치로 위스콘신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2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폭스콘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폭스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0억 달러 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했으나 공급망을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고, 2013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공장은 지어지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中 국가신용등급 또 강등
당 대회 앞둔 시진핑 타격

S&P "부채 증가세 리스크 요인"
中 경제, 국제 신뢰 추락 불가피
"시 주석, 성장·건전성 개선 고민"



중국이 4개월 만에 또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굴욕을 겪었다. 내달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사진〉 국가주석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S&P는 성명에서 "오랜 기간 지속한 중국의 부채 증가세로 경제와 금융 방면 모두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해 강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그동안 세계 경제시장의 원동력 역할을 했으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부채를 졌다고 지적했다. S&P는 "중국의 강력한 신용 성장이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 기여했지만 금융 안정성이 감소했다"며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중국의 부채 위험을 경고한 것은 S&P만이 아니다. 5월 무디스도 부채 급증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루 포크 공동 창업자는 "중국에 부정적 이슈"라면서 "국제사회의 실망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5.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 성장과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상반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중국 당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중국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를 다음 달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당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실상 3연임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중국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책을 갖고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외 순투자 규모도 크고 무역 흑자 규모도 큰 편"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강등을 예상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미 셰 싱가포르 OCB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이미 무디스의 등급 하향 이후 S&P의 강등을 추측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강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멜라니아 또 패션 구설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옷차림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멜라니아 여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해외 영부인들과의 오찬 연설에서 어린이 보호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처럼 멜라니아 여사 역시 첫 유엔 무대였다. 문제는 의상이었다. 진한 핑크색에 볼륨이 과하게 드러난 디자인의 드레스가 마치 영화 '윌리웡카' 속 블루베리 소녀를 떠올리게 한다며 SNS상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앞서 멜라니아는 허리케인 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킬힐'을 신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메르켈, 최장수 獨총리 유력… 4연임 비결은 '변덕'

여론조사 지지율 36% 1위… 중도우파이지만 원전·난민·동성결혼 등 정책 유연성 보여



2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독일 총선에서 4선 연임이 유력시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예상대로라면 16년간 독일에서 최장기 집권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용을 중시하는 특유의 '변덕스러움'이 메르켈의 장수 비결이라고 20일 전했다.

24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발표된 독일지 빌트 암 존탁의 지지율 조사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36%로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2위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은 22%를 기록했다.

메르켈이 당수로 있는 CDU는 중도우파 성향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으로 좌우를 넘나들며 지지 기반을 확장했다. WSJ는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불분명한 태도에 유권자들이 오히려 안정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원전, 난민, 동성결혼 정책에서 메르켈은 보수적인 정치 철학만 고수하지 않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메르켈은 원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이후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정책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힘을 빼지 않았다. 그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소신껏 투표하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말했다. 결국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독일은 6월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다.

난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정당은 난민 포용 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나 메르켈은 2015년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인도적 조치"라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메르켈의 지지율은 45%로 떨어졌다. 2016년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이민자들이 벌인 두 차례의 테러 공격 이후 메르켈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이에 메르켈은 두 번째 유턴을 결정했다. 그리스를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메르켈은 난민 유입의 부담을 유럽연합(EU)이 나눠서 지자고 주장했다. 메르켈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EU가 터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 규모는 크지만, 메르켈의 리더십에 그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난민 정책이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인 '선거를 위한 연구그룹'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2005년 11월 취임했을 때만 해도 유권자의 84%가 실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런데 2015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권자 중 88%가 난민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난민 정책에 대한 우려는 현재 49%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유권자는 8%에 그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테크 인사이트 헬스클럽에 도입되는 가상현실

바벨은 그만… VR게임 즐기면서 운동

방수 헤드셋 끼고 스쿠버다이빙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에서 참관객들이 VR 헤드셋과 연동된 실내 자전거를 체험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헬스클럽에 다니는 27세의 앤서니 하슨은 얼마 전부터 운동방법을 바꿨다. 이 헬스클럽이 가상현실(VR) 헤드셋과 비디오 게임을 도입하면서부터다. 기존에는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올렸다면 지금은 화살을 피하거나 바나나를 던진다.

그는 "20~3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며 "일주일에 두 번 VR 기기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2kg 이상을 감량했다. 이는 확실히 미래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극찬했다.

미국 헬스클럽 산업 규모는 연간 276억 달러(약 31조2800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VR 기기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그동안 헬스클럽들은 회원들이 단조롭고 힘든 운동에 지쳐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온갖 궁리를 짜냈다. 러닝머신 위에 TV를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해 일부 헬스클럽은 아예 운동 장소를 영화관처럼 바꿔 회원들의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덜려 했다. 사용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한 채 디지털 세상에서 '프루트 닌자'와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팔을 휘두르거나 스쿼트 동작을 한다. 심지어 일부 스타트업은 방수 헤드셋과 골전도 이어폰을 활용해 수영장에서도 마치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 스타트업인 버줌(VirZoom)은 실내 자전거와 VR를 결합했다. 현재 이 업체는 메이저 운동기구업체인 라이프피트니스와 연계해 10개 헬스클럽에서 새 기기를 실험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의 운동생리학자인 매리앨리스 컨은 "사람들이 VR 게임과 일반 운동을 했을 때의 심박수와 산소 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VR는 언덕을 달리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VR 기기의 채택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가격이다. VR 헤드셋 자체 비용만 대당 최대 600달러에 이르며 스마트폰이나 게임콘솔, 또는 고가의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VR 게임 구매 비용도 추가된다. 이에 스위스 소재 홀로디아는 월 69~99달러의 요금으로 헬스클럽에 피트니스 게임과 앱 등 일체의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피트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오르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VR 헤드셋의 디자인이 개선되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사람들은 운동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고 VR가 바로 그것"이라고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현기증이 나는 것을 피하려면 VR 운동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VR 기기를 운영하는 헬스클럽들은 "현기증은 수년 전 나온 초기 VR 헤드셋 일부 모델에서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SHINHAN
신한이란 이름이
내겐 자부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도록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新韓人.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IT Staff | Tri Agus Handoko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그룹



이순원의 **세상풍경** 소설가

우리 입을 달게 한 것들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갈리는 기호품 중에 커피가 있다. 커피는 달게 먹는 사람과 조금 달게 먹는 사람, 그리고 설탕을 아예 안 넣고 쓰게 먹는 사람으로 나뉜다. 나 역시 어릴 때는 단것을 좋아했는데, 어른이 된 다음엔 단것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어릴 때 대관령 아래 산촌에 살던 시절 배를 곯았던 기억은 크게 없지만 입에 단것은 늘 고프고 그리웠다. 겨울엔 설 무렵엿을 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런 것이 일절 없었다. 동네 어귀 삼거리 가게에 가면 눈깔사탕을 팔지만 그거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가게엔 사탕이 있어도 우리 주머니엔 사탕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 또 사탕을 사 먹으라고 돈을 줄 부모님도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모질어서가 아니라 그런 면으로는 어느 집 가릴 것 없이 그랬다. 왜 그랬는지 어른들 모두 군것질을 거짓말만큼이나 나쁘게 여겼다.



그렇다고 산촌의 아이들이 단맛을 아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아이들 방식대로 단맛을 찾았다. 봄이면 우리가 '뽐'이라고 부르던 삘기의 새순을 뜯어먹었고, 목화가 꽃을 피워 씨방이 통통해지면 목화 씨방을 뜯어 앞으로 솜이 될 녹색 섬유질을 질경질경 씹기도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은 들척지근한 푸른 단맛이 나왔다.

어른들 몰래 한여름 수수밭에 들어가 새파란 수숫대를 꺾어 그 안의 물기 가득한 푸른 수수깡을 질경질경 씹기도 했다. 사탕수수뿐 아니라 그냥 수숫대와 옥수숫대에도 그 안에 일정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었다. 푸른 옥수숫대를 꺾어 씹어도 들척지근한 단물이 나왔다.

수숫대를 씹다가 날카로운 수숫대 껍질에 입술을 베일 때도 많았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혀와 입술 여러 군데에 상처가 나기 마련이었다. 그래도 단맛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까짓것, 입술에 피 좀 나면 어때. 그동안 굶주렸던 단맛만 본다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피가 배어 나오는 입술로 아이들은 수수깡 속의 들척지근한 수액을 더욱 힘껏 쪽쪽 소리가 나도록 빨아대곤 했다. 그런다고 단물이 양껏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강릉 시내의 어느 부잣집 얘기를 할 때 "그 집은 설탕을 아주 포대째로 갖다놓고 먹는다"고 했다. 그 포대가 시멘트 포대만 하다고 했다.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설탕 포대를 본 적이 없었다. 작은 봉지에 든 설탕만 봤지 설탕이 커다란 포대로도 나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포대는 시멘트 포대와 비료 포대, 밀가루 포대 같은 것뿐이었다.

어쩌다 여름날 수박화채를 만들어 먹을 때에도 설탕이 너무 비싸서 사카린으로 만든 당원(糖源)을 썼다. 어릴 때 떡을 꿀에 찍어 먹고는 자랐어도 설탕을 마음껏 찍어 먹어 본 적이 없었다. 몇몇 설탕 생산국을 제외하곤 세계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일인당 설탕 소비량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다. 그 나라가 얼마나 잘사느냐를 설탕 소비량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것 역시 1970년대 초반의 얘기였다.

쌀과 연탄 다음으로 귀한 생필품이어서 물가가 오를 때 물가변동 주요 품목 안에 늘 설탕이 있었다. 그런 설탕이 물가지수 품목에서조차 빠진 지 오래라고 했다. 길거리에 단것은 여전히 범람해도 생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있는 듯 없는 듯 줄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설탕으로도 이렇게 한 시대의 모습이 흘러간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前 현대경제연구원장

가상화폐가 미래 금융을 좌우한다

지난 12일,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인 제이피모건(JP Morgan)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fraud)이며, 곧 꺼질 것이다"라고 직설적인 언급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 금융당국의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가 확인되자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은 급전직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가격은 미친 투기꾼들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며, 버블에 불과한 것일까? 이 부분에 관해 15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논평을 남겼다. "금융의 세계에서 혁신과 투기적 버블은 때로는 같이 나타나곤 한다."

되돌아보자.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 수없이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소위 '닷컴버블'에 힘입어 생겨났다. 당시 회사 이름 뒤에 '닷컴(.com)'만 붙여도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되어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고, 쉽게 상장해 주가가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비판하였다.

그 버블은 약 2년 뒤 무참히 깨어져 나스닥의 경우 주가가 70%나 폭락했다. 그러나 그 뒤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은 이제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이 되어 버렸으며, 이때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 예컨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은 당시 닷컴버블 때의 나스닥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는 예외 없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에 따라 버블 또한 형성되었다.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그러하였으며, 열차가 나타날 때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신기술들은 우리의 생활을 진일보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가상화폐도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편 18일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가상화폐에 대한 1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BIS는 "폭발적인 가상화폐 성장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국 화폐를 가상화폐로 발행할 것"을 권고하는 놀라운 발표를 하였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로 자국 통화를 발행한다면, P2P 기반인 가상화폐의 특성상 은행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하고 있다.

또 20일에는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즈호은행이, 일본 엔화와 1대 1 등가성(等價性)을 갖는 가상화폐, 즉 'J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하였다. 비트코인 등의 가격 움직임이 너무 불안하여 화폐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많으니, 엔화에 페그(peg)시켜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은행 입장에서 자체적인 가상화폐 발행은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는 초기 발행에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 이후론 추가 발행 비용이 거의 제로 수준이어서, 소위 주조차익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표 등의 경우 발행 및 폐기 등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상화폐는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류(類)의 개인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물론, KB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 신세계백화점이 발행한 가상화폐 등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와 같이 사용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각 은행이나 개별 기업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들은 원화에 페그된 관계로 가치는 변동되지 않지만, 발행주체의 신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로 거래될 것이다. 아울러, 원화는 점차 대외적 환율 등 기준치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실생활에서의 사용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역할이 축소될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미래 금융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컷

하늘, 구름, 가을



청량한 하늘이 넓게 펼쳐진 9월의 어느 날, 가을을 고대하던 이들이 하나 둘 뭉게구름과 함께 그 속으로 파고든다.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 산책을 하고 손가락을 맞대 기념사진을 남긴다. 그렇게 가을에 물들어 한 컷에 담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온라인 와글와글

추석연휴 제주에 52만명 방문 "바가지요금만 없었으면…"



추석 황금연휴에 52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추석 황금연휴 직전인 29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1일간 관광객 51만8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만2492명)에 비해 5000여 명 늘어난 규모다. 이 기간 항공사들은 국내 제주 노선에 특별기 61편 등 총 2506편을 투입한다. 항공편 예약률은 평균 89~94%로 만석 수준이다. 연휴 기간 도내 렌터카 예약률은 60~90%, 콘도미니엄 80% 이상, 전세버스 65% 이상, 골프장 41% 이상, 관광호텔 40% 이상 등이다. 반면 국제 크루즈선의 제주 입항 계획은 없다.

네티즌은 "바가지요금만 없었으면 좋겠네", "추석 황금연휴 제주도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하더라", "중국 관광객 없어도 한국 관광객이 그 자리를 다 메우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어른이'들에게 새롭게 뜨는 장난감 '슬라임(slime)'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 세계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아이템입니다. 유명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등장하고요. 끈적끈적하고 쭉쭉 늘어나는 형태로 만지작대며 갖고 노는 슬라임은 '액체괴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슬라임이라는 이름도 미국의 한 소설에 등장하는 질척대는 괴물을 본떠 지어졌죠. 힐링을 선물하는 슬라임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실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g2zBzu



이슈&인물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地球…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안 병 옥
환경부 차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87%가 에너지 부문
석탄·원전에 의존하는 구조
4차 산업혁명 흐름에도 역행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약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
트럼프가 탈퇴 선언했지만
시민사회·기업 여전히 지지

인류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감지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2년이다. 당시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다.

1992년 리우회의 첫 기후협약 체결

하지만 이후 20년간은 기후변화가 지구를 옥죄어 왔지만, 그 누구도 대응하려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시점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부터이다.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가 나왔지만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대응이란 합의점을 모색하기까지는 다시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한 파리협약 체결이 그것이다.

환경운동 1세대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공론화로 나오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고한, 국내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전문가로 유명하다.

안 차관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지금 이 시각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사상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점차 지구의 임계치(tipping point)에 다다르고 있다"며 "최근 미국을 연이어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이나 한반도에 게릴라성 폭우가 덮치고 올여름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7위를 기록한 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심벌.

특히 안 차관은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문제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등 에너지 사용과도 연결된다"며 "이(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차관의 판단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이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은 내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생산자 겸 소비자인 시대

-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간 경제 성장을 위해 석탄과 원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로 의존성을 극복하고자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세대교체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에너지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의 큰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노후 석탄화력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석탄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에너지 절약 운동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알게 됐지만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등 에너지 사용과도 연결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둘 다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슈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자는 인류 생존의 문제인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석탄과 원전에만 의존하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에너지의 소비가 아닌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의 시대이며, 에너지 효율과 생산·물류의 혁신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시민 모두가 발전소이자,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년까지 보완

-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환경부가 다시 전면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분야별 감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조정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내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유상할당을 도입하고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할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린카드 등 저탄소 생활 확산,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론 대응 못해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파리협정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문서로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비록 미국 정부는 협정 탈퇴의 입장을 선언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10년 연장하고, 테슬라와 디즈니사(社) CEO를 비롯한 약 1억2000만 명의 미국 시민이 파리 협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는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 기후변화·에너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또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고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변화·에너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세대교체는 곧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더 이상 회색빛 과거에 눈 돌리지 말고 녹색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反공해운동 통해 환경문제 눈떠…국내 대표적 기후변화 전문가

1963년 전남 순천 출신인 안병옥 차관은 서울대 재학 시절 반공해운동을 통해 처음 환경문제에 눈을 떴다. 이후 10년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귀국 후에는 반공해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에서 한국 내 환경운동을 이끌었다. 2007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8년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해외 환경운동 동향 등을 연구하면서 환경문제의 중심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200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를 설립해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국내 대응 방안을 연구했다. 2014년부터는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의 소장을 맡았다. 환경 분야에 관한 오랜 연구 활동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6월 환경부 차관에 취임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64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나는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고 싶다
서미림지음 | 232쪽 | 13,500원
화제의 신간
스피치의 여왕이 전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특별한 기술!
대한민국 말하기 교과서 · 리더들의 필독서 · 취준생들의 필독서
인생 역전의 비결 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라!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남은 빈방 떨이로…호텔도 손님도 대만족"

로스쿨 버리고 창업 택한 김가영 호텔나우 대표

숙박업소 4000곳 이상 제휴
합리적인 가격에 당일 예약
글로벌 시장 진출 큰 포부
작년 야놀자에 인수 결정
프리미엄 라인 갖춘 브랜드로
B2C 이어 B2B 컨설팅 확장도

5년 전 로스쿨 입학을 며칠 앞뒀던 김가영〈사진〉 호텔나우 대표는 홀연히 떠난 부산 여행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다. 당일 비어 있는 호텔 객실을 쉽게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는 잘 곳을 찾느라 빈 방이 남은 호텔을 찾아 헤맨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법조인의 길에서 창업의 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학교는 나중에라도 갈 수 있으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마침 모바일 서비스에 관심이 많던 그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기로 작정했다. 로스쿨 학자금은 창업 자금으로 사용됐다.

김 대표는 발로 뛰며 호텔 영업에 나섰다. 아이디어와 땀은 빛을 발했다. 2013년 2월 회사 봉봉랩을 설립하고 그해 10월 호텔나우를 세상에 내놨다. 아이디어는 기어코 현실이 됐다. 호텔나우를 이용하면 모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숙박업소 4000여 곳의 방을 당일 예약할 수 있다. '떨이'로 나와 가격이 크게 내려간 객실을 찾는 것이 묘미다.

성장세를 이어가던 호텔나우는 지난해 7월 국내 숙박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업의 선두주자인 야놀자에 전격 인수됐다. 야놀자는 호텔나우가 마케팅 없이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호텔 부문을 독립적으로 맡아 운영 중인 호텔나우는 올해 7월 전년 대비 3배 넘는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

어렵게 키워놓은 회사를 야놀자와 합치기로 한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호텔나우 혼자만으론 역부족이지만 중국 고객 확보에 전략을 가진 야놀자와 함께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나우는 당일 방이 필요한 고객과 당일 방을 팔아야 하는 고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김 대표는 두 고객을 상대할 때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의 이용 목적은 급할 때 객실을 찾는 것이기에 원하는 걸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파트너 호텔도 매출 증가를 위해 여러 요청을 해오는데 이를 빨리 처리해야 더 좋은 상품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요즘 주목하는 호텔 이용 트렌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업 전인 4년 전보다 사람들이 호텔 예약을 '모바일·라스트미닛(당일 예약)'으로 하는 것에 훨씬 익숙해졌다"며 "호텔 시장의 성장과 호텔나우 같은 모바일 서비스 덕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향후 목표에 대해 "호텔나우가 프리미엄 호텔 라인을 원하는 고객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또 "B2C뿐만이 아닌 야놀자와 호텔나우의 노하우로 B2B 컨설팅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진제공 호텔나우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추석 명절 맞아 소외층에 10억 추석 선물

삼성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 경기도 수원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할 10억 원 상당의 부식품 세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적십자사 봉사자들은 밀가루, 된장, 식용유, 참기름 등 11종으로 구성된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 노조의 '이웃사랑' 생필품 담은 부식박스 전달

LG전자 노동조합은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부식박스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 노동조합과 사원대표협의체인 주니어보드는 21일 쌀, 김, 밀가루, 통조림, 식용유 등 10여 가지 생필품을 담은 부식 박스를 직접 포장해 총 210가구에 전달했다.

최양수 대표, 인니 키데코 광산 찾아 '현장경영'

(주)한화 해외 마이닝 사업장 방문
실제 발파 참관하고 안전성 확인
"고효율·친환경 제품 지속 공급
2023년 年 매출 3000억 목표"

최양수 ㈜한화 대표이사가 해외 마이닝 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번 현장 경영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21일 ㈜한화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달 17~21일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을 찾아 현지 마이닝 사업장을 살펴봤다. 마이닝 서비스는 광물 채굴을 위해 필요한 화약과 뇌관을 비롯한 제품 제조 및 공급과 운반, 천공, 장약, 발파 설계와 발파 서비스, 폐석 반출을 포함한 광물 채굴을 위한 종합 서비스 사업이다.

㈜한화는 2014년 키데코(KIDECO) 광산에 진출하며 해외 마이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제품과 발파 서비스 공급 계약 등을 이뤄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의 연간 매출은 1000억 원 규모로, 2023년까지 매출 30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대표는 키데코 광산 현장을 찾아 이종범 키데코 부사장 등 현지 경영진을 만나 석탄 채굴 현황, 에멀전 화약의 수요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한화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광산 현장을 찾아 실제 발파가 이루어지는 현장 등을 함께 참관하며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특히 최 대표는 자카르타로 이동해 현지 법인 직원들을 만나 "최근에 수주한 사업까지 포함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이후 달성한 누적 수주액이 500억 원을 넘는다"며 "㈜한화만의 고효율, 친환경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사업 확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최양수 ㈜한화 대표이사(가운데)가 키데코 이종범 부사장(왼쪽)과 박윤석 ㈜한화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함께 마이닝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요식업 대부' 백종원의 대박 비결은…

"장사 잘 안되는 곳에서 일해보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알수 있어"


사진제공 더본코리아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사진〉 더본코리아 대표가 동국대 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국대학교는 올해 3월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로 임용된 백 대표가 문화예술최고위과정 수업에서 '요리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요식업 창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장사가 잘되는 곳보다 잘 안 되는 곳에서 일해보라"며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해보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자신의 아이디어의 원천은 "소비자의 심리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매장을 하나의 무대로 생각하고 손님을 대하라"고도 조언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구만섭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신현성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상욱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부산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정범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강진구 △인천지검 사무국장 강성식 △대전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대구지검 사무국장 박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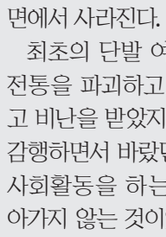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 이주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조재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서해동 △대변인 김종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신영호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이태휘 △경쟁심판담당관 유성욱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심주은 △정보화담당관 최영수

◆**코스맥스 〈임원 전보〉** △국내 마케팅본부 총괄 부사장 윤원일 △국내 마케팅 본부 이사 김철희 △코스맥스광저우 총경리 전무 이상인

한국여성 인물사전 〈203〉 강향란(姜香蘭)

전통적 여성성 거부…단발 남장 시도한 기생



1895년 '근대개혁'의 명목으로 단발령이 공포되었을 때, 단발이 외세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근대'임을 감지한 조선 남성들은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전통의 논리로 맞섰다. 한편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은 개화파 남성들에게 단발은 서구식 부국강병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했던 개화파의 메시지였다.

여성의 단발은 1922년에 은밀히 시작되었다. 강향란(姜香蘭)이라는 전직 기생이 단발을 하고 남자 강습소에 다니다가 '발각'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남성 지식인들은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조선 여성이 사치와 허영을 좇아 '조선의 성질', '여성성'을 버리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겉멋에 휘둘려 전통을 파괴하고 몰지각하게 근대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1900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난 강향란은 한남권번(漢南券番) 소속 기생으로 있다가 어느 청년의 지원으로 배화여학교에 다녔다. 진학을 거듭하며 학업에 매진하던 중 청년과 이별하여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삶의 낙을 잃고 자살 시도도 실패한 끝에 강향란이 얻은 결심은 계속 공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었다.

학비도 없고 배울 데도 마땅치 않았던 강향란은 스스로 단발을 하고 남장을 한 뒤 1922년 6월부터 남자 강습소를 다녔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 났다. 처음 보는 단발 여성을 향한 호기심과 냉기 어린 시선 속에서 강향란은 "여자도 굵게 살자면 남자만 못지않다, 이전의 기생생활을 버리고 남자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여성의 남성화는 조선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비난이었다.

이후 강향란은 사회주의 이론에 공명하면서 조선무산자동맹회 등 항일단체 활동에 관계했다. 1923년 4월에는 일본 사회주의 이론가의 서적을 갖고 상하이(上海)행 연락선을 탔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기도 했다. 1926년에는 '봉황의 면류관'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기사도 보였다.

1927년 강향란은 강석자(姜石子 또는 錫子, 石者)라는 이름으로 근우회(槿友會)에서 활동했다. 특히 근우회 경성지회의 설립 준비와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간이 행보를 엿보이던 강향란은 근우회 해체 이후 공식 지면에서 사라진다.

최초의 단발 여성으로서 조선의 전통을 파괴하고 여성성을 버렸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녀가 단발을 감행하면서 바랐던 것은 배우는 것, 사회활동을 하는 것, 기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논란에 굴하지 않고 단체 활동에 관계하거나 중국을 오가거나 배우 활동을 하며 살았다. 강향란 이후 단발을 선택하는 여성은 늘어갔다. 이들에게 단발 행위는 전통적인 조선여성의 삶을 넘어 여성이 직접 꾸려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박정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자산총액 50조… 전세계 최고 부자 여성
'로레알 창업자 외동딸' 베탕쿠르 별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프랑스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 창업자의 유일한 상속녀였던 릴리안 베탕쿠르가 2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4세.

베탕쿠르의 딸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마이어스는 21일 성명을 통해 "릴리안 베탕쿠르가 어젯밤 집에서 돌아가셨다"며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베탕쿠르는 192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외동딸인 베탕쿠르는 1907년 아버지 외젠 슈엘러가 세운 화장품 업체 로레알 사업을 15세부터 돕는 등 어린 나이에 사업가로 활약했다. 오늘날 로레알은 140개국에서 약 9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업체로 성장했다.

포브스의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987년 처음 이름을 올린 베탕쿠르는 3월 시점의 자산 총액이 447억 달러(약 50조 원)로 세계 14위였다. 여성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다. 로레알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생전에 사재를 털어 자선재단을 설립해 프랑스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0년 전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암울한 말년을 보냈다. 그녀의 치매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법원은 그녀의 딸과 손주들을 후견인으로 지정, 결국 베탕쿠르는 2012년에 회사 임원 자리도 내놓은 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2015년에는 베탕쿠르의 정신 상태를 이용해 수백만 유로를 빼앗은 사진사와 전 매니저 등 8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로레알의 장 폴 아곤 회장은 베탕쿠르의 별세 소식에 "우리는 모두 릴리안을 존경했다. 그는 항상 로레알을 살폈으며, 성공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애도했다.

지난해 로레알의 매출은 285억9000만 달러였으며 메이블린, 키엘, IT코스메틱을 포함해 34개 미용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부음

▲**이정애**씨 별세, **홍영표**(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씨 모친상 = 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현빈**(전 아시아나IDT 상무)·**도인**(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씨 부친상, **김현경**(보배로운교회 목사)·**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씨 시부상 = 21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31-900-0444

▲**고영선**(한국토요타자동차 홍보이사)씨 부친상 = 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02-2258-5940

▲**장봉용**씨 별세, **신승근**(한겨레 정치에디터)·**승철**(단골금속 부장)씨 모친상, **염근애**(서울컨벤션고 교사)씨 시모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32

▲**김일정**씨 별세, **남경우**(애드오션컴 대표)씨 모친상 = 21일, 고양시 일산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1-923-7000

가입문의 101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주세요

LG U+

유튜브[YouTube]를 U+tv로
더 쉽게 더 즐겁게

[SBS 영재발굴단 출연, "5개 국어 하는 서연이"]

집에 아이가 있다면 U+tv 아이들나라

동화구연 전문가가 직접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TV

시청 편수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시청 관리기능

아이 눈에 자극을 줄여주는
시력보호모드

"음악 할 땐 '초심 불변'… 꿈을 꿀 땐 '상상 초월'!"

인터뷰 '러브 유어 셀프 승 허'로 음반차트 휩쓴 그룹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는 K팝 그룹 중 하나다. 18일 공개된 새 미니 음반 '러브 유어 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는 발매 직후 73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 음반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다. 미국 아이튠즈의 메인차트인 송 차트에서는 K팝 보이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4위까지 올랐다. 해외 팬덤의 규모를 측정하는 뮤직비디오 조회수 또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꿈의 차트'인 빌보드 핫100 진입도 머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던 방탄소년단을 비즈엔터가 만났다.

- '러브 유어 셀프'가 담은 화두는 무엇인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글을 봤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발달하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우리도 아직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실 자신 없지만 '러브 유어 셀프' 시리즈를 통해 해답을 찾고 싶다." (랩몬스터)

- '기승전결' 중 '승'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몰입하는 단계가 '승'이라고 생각했다. '허' 음반은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순간을 그린 곡들이 많다. 사랑에 가장 몰입한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승'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나올 음반들을 따라가다 보면 왜 '승'이 먼저 나왔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슈가)

- 수록곡 '고민보다 고(GO)'를 비롯해 그동안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많이 발표해 왔다

"(사회적인 메시지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의 거창한 일도 물론 좋지만, '신난다' '춤이 멋있다'는 단순한 감상 역시 그분들의 인생에는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랩몬스터)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팬분들이 우리 음악을 통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좀 더 멋지고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창작에 임하고 있다." (슈가)

- 음반 기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평소 방시혁 PD님 등 회사 프로듀서들과 굉장히 자주 만나며 생각을 공유한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때도 있고, 프로듀서들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던져 주시기도 한다. 데뷔 초에는 음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프로듀서들의 생각이 잘 응집돼 음반이 완성되는 것 같다." (슈가)

- 방시혁 프로듀서가 최근 인터뷰에서 '초심을 지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초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에게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다만 그것이 건방지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위치에 걸맞은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랩몬스터)

"'항상 변화하고 멋지게 성장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을 만들 때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신다. 나 또한 음악에 관해서만큼은 초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슈가)

-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 이후 '빌보드 핫100'에 오르고 싶다는 얘기를 남겼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핫100' 차트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음반, 스트리밍은 물론 라디오에서도 노래가 많이 재생돼야 한다. 그래서 '진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미국에서 음반도 많이 팔리고 현지 라디오에서도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 꼭 들어가고 싶다." (슈가)

"매번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적당한 건지 고민스럽다. 데뷔 전에는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소속사를 통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기고 싶다." (랩몬스터)

사진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은호 기자 wild37@



새 미니 음반 발매후 73개국 아이튠즈 음반 차트 1위

뮤비 조회수 신기록… '빌보드 핫100' 진입 눈앞

목표? 우리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

사회메시지 담은 우리 음악… 많은 사람 행복했으면

아프니까 청춘? '탕진잼'에 쯧쯧 그러니까 꼰대!

방탄소년단, 사회 비판곡 다수 수록
학교폭력·왕따 등 약자들과 눈맞춤
화해·통합 메시지 기성세대에 전달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19일 서울 소공동의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방탄소년단의 음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방탄소년단은 정식 데뷔 전 발표한 믹스테이프에서 학교 내 왕따 문제를 지적한 '학교의 눈물'을 시작으로, '쩔어' '엠 아이 롱(AM I LONG)' 등의 노래에 사회 현상을 투영하고 그에 대한 일갈을 담았다.

방탄소년단의 사회 비판곡은 동세대 청년들과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라고 지적하는 '쩔어'나 '탕진잼(작은 사치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에 빠진 청년들의 모습을 그린 '고민보다 고(GO)'가 대표적이다. 슈가는 '고민보다 고'에 대해 "왜 젊은이들이 '탕진잼' 같은 단어를 쓰는지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해 곡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득권 바깥의 목소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방탄소년단은 새 프로젝트 '러브 유어 셀프(LOVE YOURSELF)'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약자와의 눈 맞춤을 시도한다. 지난달 공개된 하이라이트 릴 영상에서 멤버 정국은 휠체어를 탄 채 등장하고, 제이홉은 회상 장면을 통해 가족에게 버림받은 과거가 있음을 암시한다. 스스로를 약자로 설정해 음반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신체적 결함이나 유기 등 당사자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SNS 유저는 "빅히트는 청춘으로 표방되는 캐릭터마다 불행 요소를 설정해 이를 청춘이 겪는 시련으로 포장했다"면서 "실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지닌 특성을 단순히 불행 요소로만 해석하고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전제의 상당 부분이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리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탄소년단이라는 특정한 그룹에만 해당하는 문제 또한 아니다. 혼성 그룹 트리플H는 올해 5월 발표한 '365프레쉬' 뮤직비디오에 '잃을 것 없는 세 명의 청춘이 만나 비로소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와 자살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 사용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방황하는 청춘'을 표현하는 수단이 약자성과 범법적 행위에 의지하는 편향된 상상력은 K팝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슈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세대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고민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지켜봐 주신다면 멋지고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러브 유어 셀프'는 '우리' 안에서 펼쳐졌던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너희'의 세계로 침투하고 확장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음반인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분노와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에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적 인식을 담은 아티스트적 접근이 성공 비결"이라던 빌보드의 분석이 또 한번 맞아떨어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

아이돌 오디션 프로 10월 대격돌

각본없는 드라마 '믹스나인' vs 아이돌 리부팅 '더 유닛'

프로듀서에 양현석
'프듀101' 제작진 투입
데뷔조 땀과 눈물 조명
스토리 있는 오디션 예고

MC·멘토에 가수 비
전·현직 아이돌 대상으로
실력 따라 순서만 다를 뿐
참가 전원 모두 데뷔 기회

10월, 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면 대결한다. '또 아이돌 오디션이야?'라고 눈부터 흘기기에는 그 규모가 심상치 않다. JTBC의 '믹스나인'과 KBS2 '더 유닛'은 전국의 아이돌 기획사에서 연습 중인 '원석'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공통적인 키워드는 '기회'다.

두 프로그램은 비슷한 듯 다르다. 먼저 '믹스나인'은 독특한 컬래버레이션이 돋보인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제작하고, Mnet '프로듀스101''쇼미더머니''언프리티랩스타' 등을 만든 한동철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JTBC를 통해 방송된다.

YG의 수장 양현석이 프로듀서로 나선다는 점도 '믹스나인'의 관전 포인트다. 양현석이 YG 소속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를 대동해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연습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조명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한동철 PD는 19일 열린 '믹스나인'의 기자간담회에서 "오디션을 볼 참가자가 아직도 남았냐고 물으시지만, 생각보다 실력 있는 연습생이 많다"며 YG라는 대형 기획사의 제작 능력과 영향력을 통해 이들에게 빛을 보게 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믹스나인'은 여타 아이돌 오디션과 달리 첫 회부터 참가자들을 경쟁시키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스토리에서 진정성을 찾고, 드라마를 부여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성별과 소속사에 관계 없이 모인 400여 명의 연습생 가운데 옥석을 가려 각각 9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과 걸그룹으로 팀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 팀에게만 우승의 영광을 선사한다.

반면 '더 유닛'은 연예계 데뷔 경력이 있는 전·현직 아이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다. 재능은 있지만 무대에 오를 기회가 없어 잊힌 아이돌들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유닛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더 유닛'의 포부다. 9인조 남녀 한 팀씩을 선발하는 점은 '믹스나인'과 같지만, '더 유닛'은 이들을 모두 데뷔시킨다. 대신 대국민 투표를 통해 데뷔 순서를 결정한다.

'믹스나인'과 달리 '더 유닛'은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2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에는 90여 개 기획사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첫 방송까지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공개 녹화에도 3만여 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1월 배우 김태희와 결혼한 후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촬영에 몰두하고 있던 가수 비가 MC 겸 멘토로 등장한다는 점 역시 '더 유닛'의 볼거리 중 하나다. 피나는 노력으로 '월드 스타'가 된 비가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건넬 위로와 조언, 따끔한 질책에도 기대감이 쏠린다.

한편 '믹스나인'과 '더 유닛'은 각각 10월 28일과 29일 첫 방송된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이젠 코스닥… 용틀임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콘텐츠 제작 子회사로 최근 상장 예심 통과
공모로 최대 2100억 자금조달…기업가치 6000억 평가

'별그대' 박지은, '태후' 김은숙 등 대형 작가군단 보유
OTT시장 성장도 긍정적…'비밀의 숲' 36억에 판매도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해 성장시킨다는 것은 방송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다."

15일 CJ E&M의 콘텐츠 제작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하자, 업계에서 쏟아진 반응이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 출범 1년여 만에 코스닥 입성을 예고하고 있다. 공모예정 금액은 1850억 원에서 2100억 원, 주당 발행가는 3만900원에서 3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81억 원, 영업이익은 174억 원이다. CJ E&M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1284억 원, 영업이익이 465억 원임을 고려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쟁력은 작가다. '별에서 온 그대' 박지은, '태양의 후예' 김은숙, '뿌리깊은 나무' 김영현·박상현 작가 등 이름만으로도 편성, 캐스팅, 시청률까지 보장된 대형 작가 군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에만 tvN '시카고 타자기', '비밀의 숲', OCN '터널'뿐 아니라 현재 방영 중인 KBS2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제작했다. SBS 토요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tvN '마더' 등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24편에 이어 올해에도 무난하게 20편 이상을 제작하리란 관측이다. IHQ, 초록뱀, 팬엔터테인먼트, 삼화네트웍스 등 상장된 다른 드라마 제작사들과 비교해도 월등한 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을 통해 가치가 부각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정엽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되면서 드라마 유통 부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CJ E&M 역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황승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CJ E&M의 상장과 함께 방송 부문 드라마 흥행은 여전히 유지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상장 이후 방송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회사에서 자체 콘텐츠 개발에 1조 원에서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두루 흥행력을 갖춘 한국 드라마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비밀의 숲'은 넷플릭스에 약 36억 원에 판매됐다.

박정엽 연구원은 "아시아 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고려하면 넷플릭스로만 조 단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장기적으로 타 OTT 플랫폼의 경쟁 합류, 기존 전통 케이블의 OTT화를 함께 고려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재민 연구원도 "시장 변화로 제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서 "CJ E&M과 분사로 매출 증가 여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는 최소 6000억 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지상파 잇단 파업에 나홀로 웃는 SBS

MBC·KBS 결방에 시청률 수혜
동시간대 꼴찌 '런닝맨' 1위로 껑충
'백종원의 푸드트럭' 7% 자체 최고

'불청' '자기야' '정법' '동상이몽' 등
기존 인기 예능들도 파죽지세

SBS 예능이 지상파 경쟁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근 언론 정상화를 위한 MBC, KBS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KBS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 주요 예능 대다수가 결방 중이다.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등 인기 예능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방송 제작이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상파 중 홀로 정상 방송 중인 SBS가 반사이익을 얻기 시작했다. 시청률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던 SBS '런닝맨'이 동시간대 1위를 탈환했고, '백종원의 푸드트럭' 또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런닝맨'은 경쟁사들의 총파업 이후 시청률이 점차 상승했다. 지난 3일 방송은 7.7%, 10일 방송은 7.9%, 17일 방송은 8.2%로 각각 0.2%p, 0.3%p씩 상승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 또한 3~4%대를 유지하던 시청률이 지난 8일 1.9%p 상승한 6.8%, 지난 15일 방송에서는 0.2%p 상승한 7.0%를 기록하며 2연속 자체 최고 기록을 냈다.

기존 인기 예능들의 상승세는 말할 것도 없다. '불타는 청춘', '자기야-백년손님', '정글의 법칙' 등은 동시간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순항 중이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우블리 효과'로 월요일 심야 예능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싱글와이프'는 강력한 맞수 '라디오스타'의 결방으로 지상파 동시간대 1위 자리에 올랐다.

현존 예능 최강자로 꼽히는 '미운우리새끼'는 지난 3일 방송(16.3%)과 10일자 방송(17.7%)에 이어 지난 17일 방송이 19.8%까지 치솟으며 드라마도 돌파하기 어렵다던 20%대 시청률 고지를 넘보고 있다.

경쟁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SBS가 기회를 얻게 됐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로지 SBS에 달린 문제다. SBS 예능이 시청률 1위 자리를 완전히 굳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예슬 기자 yeye@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사진위)와 '런닝맨' 사진제공 SBS

tvN 후속 드라마 코드는 '청춘'

씁쓸하지만 달콤한 너와 나의 현실

월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정소민·이민기 주연 수지타산 로맨스
'내 집 마련' 고민 88만원 세대 자화상

주말 '변혁의 사랑'
최시원·강소라·공명의 코믹 반란극
재벌 3세·생계형 프리터족 등 담아

tvN이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며 하반기 상승세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월화극, 주말극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 만큼 tvN이 선보이는 새로운 청춘 드라마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첫 선을 보이는 것은 '아르곤' 후속의 tvN 새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극본 윤난중, 연출 박준화, 제작 스튜디오드래곤·MI)다. 집 있는 달팽이가 세상 제일 부러운 '흄리스' 윤지호(정소민 분)와 현관만 내 집인 '하우스푸어' 집주인 남세희(이민기 분)가 한 집에 살면서 펼쳐지는 수지타산 로맨스를 표방한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제목부터 88만 원 세대인 '청춘'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tvN 측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춘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물론 연애, 결혼, 직업을 향한 청춘의 시각이 담긴다"면서 "주거생활은 물론 연애, 결혼도 통장 사정에 맞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신조어)에 따라 결정하는 청춘 로맨스"라고 설명했다.

'명불허전' 후속으로 배치된 '변혁의 사랑'은 코믹 정서에 좀 더 중점을 뒀다.

tvN 새 주말드라마 '변혁의 사랑'(연출 송현욱 이종재, 극본 주현, 기획 글 Line,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삼화네트웍스)은 백수로 신분 하락한 생활력 제로의 재벌3세 변혁(최시원 분)과 고스펙의 생계형 프리터족 백준(강소라 분), 그리고 금수저를 꿈꾸는 엘리트 권제훈(공명 분) 등 세 청춘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코믹 반란극이다.

'변혁의 사랑'의 이야기 주축을 맡는 건 바로 백수와 생계형 프리터족이다. 여기에 톡톡 튀는 청년들의 로맨스가 어우러진다. 앞서 최시원이 군 입대 전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물오른 코믹 연기를 선보였던 만큼, 그가 타이틀롤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같은 청춘이지만 이들을 조명하는 방식은 서로 차이를 뒀다. 각기 다른 청춘들의 애환이 어떤 흥행 요소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10월 9일, '변혁의 사랑'은 14일 첫 방송된다.

김예슬 기자 yeye@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왼쪽)와 '변혁의 사랑'. 사진제공 tvN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추악한 진실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의 처참함, 참담함, 그리고 허탈함. 지난 며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가슴 한구석에 구멍 하나를 달고 지냈을 것이다. 은근한, 하지만 강력한, 동시에 치밀하게 가해졌던 하차 압력. 정권에 반(反)하는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TV에서, 극장에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품었던 막연한 의구심이 점차 실체적인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퇴출 압박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는 총 82명이다.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문소리·오광록 등 배우(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8명) △윤도현·김장훈·고(故) 신해철 등 가수(8명)까지 총 82명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개탄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퍼졌다. 문성근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각종 TV와 라디오,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

원세훈 前 국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인물·단체 퇴출 압박 사실로

조정래·문성근 등 82명 명단에
피해자 "민·형사상 고소 준비"

방검찰청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가 (특정 인물 및 단체에게) 압력을 가하는 건 완전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적 처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돼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각 방송사 간부 등에 하달, 특정 프로그램 및 연예인에게 압박을 가했다. 언론노조는 △뉴스·시사 프로그램 및 라디오 예능 드라마에 대한 개입 시도 △MBC 자체 블랙리스트 △'세월호', '촛불' 등의 단어 금기 △문성근, 이하늬 등 특정 연예인 배제를 위한 국세청 동원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화계 역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창동 감독의 '시(詩)'다. 문성근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던 해외 수상 감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창동 감독의 '시'가 시나리오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웃지 못할 사실은 이 작품이 훗날 세계적 권위를 지닌 칸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문성근은 "당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난리가 났다"고 귀띔했다.

방송인 김미화, 배우 김여진 등이 문성근에 이어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측은 당분간 피해 당사자들을 불러 문화·예술계에서 이뤄진 불이익 및 퇴출 압박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 역시 문성근을 필두로 민·형사상의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미화의 말마따나 '실화냐?'고 묻고 싶은 현실. 역사는 지금을 어떻게 기록할까.

이은호 기자 wild37@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 선물세트

超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채



롯데백화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추석인 만큼 예년보다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 더욱 뚜렷해진 선물 양극화 현상으로 초프리미엄급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를 대폭 확대했다.

'프리미엄 L' 선물 세트는 선물 포장부터 신선도까지 최고급으로 준비한 고품격 선물 세트다. 'L-No.9(엘넘버나인) 세트'가 대표적으로 가격은 130만 원이다. 한우 1++ 등급을 사용했고 총 무게만 6.5kg에 달한다. 이 제품은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했는데 지난 18일까지 35세트가 팔리며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로는 정육의 경우 '프리미엄 불고기 선물세트'(4만9000원), '한돈 언양식 불고기 세트'(4만9000원), '호주 와규 실속 정육세트'(4만9000원) 등이 있다. 수산물로는 '국산 고등어 구이 세트'(5만 원), '영광 법성포 어물전 실속 굴비세트'(5만 원), '신진 제수용 민어 실속세트'(5만 원) 등이 가격대비 실속있는 선물로 꼽힌다.

이밖에 '유러피안 실속 크랩 세트'(5만 원)를 비롯해 혼밥족을 위해 'MCC고베식 당 카레 2호'(3만5000원)와 '프리미엄 불고기 선물세트'(4만9000원)를 판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 한우세트

명절 '완판' 화식한우 물량 20% 늘려



현대백화점은 한우·굴비 등 신선식품과 일반식품 등을 추석 선물로 준비했다. 특히 3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우가 올해 추석 최고 인기 선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을 지난 추석보다 20%가량 늘렸다.

여물을 끓여 먹이는 전통 사육 방식으로 키운 최고급 한우인 화식한우 세트는 명절 때마다 늘 완판되는 현대백화점의 대표 상품이다. 화식한우는 일반 한우에 비해 필수지방산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 육색이 짙고 씹을 때 찰진 느낌을 준다. 대표 상품은 '현대 화식한우 국'(42만 원, 2.9kg), '현대 화식한우 난'(48만 원, 3.8kg) 등이다. 현대백화점이 추천하는 선물은 '현대 화식한우 죽'(32만 원)이다. 등심 불고기(0.9kg), 산적(0.9kg)으로 구성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이천 청정지역의 79만3500㎡(24만 평) 대지에서 한우를 방목해 키운 '설성목장 한우 세트'도 판매한다. 방목으로 키운 한우는 면역력이 강하고 튼튼해 육질이 좋고 육즙이 풍부하며 훌륭한 식감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설상목장 한우 세트는 찜갈비(1.1kg), 등심 로스(0.9kg), 채끝 스테이크(0.9kg), 등심불고기(0.9kg)로 구성했고 가격은 52만 원이다.

KGC인삼공사 | 화애락

갱년기 접어든 엄마 피로 해소에 '최고'



추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갱년기 중년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정관장의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은 홍삼을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항산화 기능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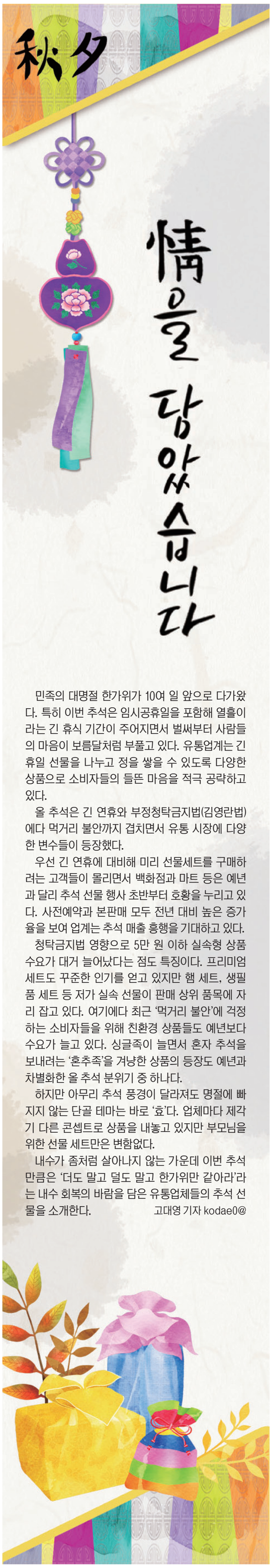
'화애락' 시리즈에 사용되는 홍삼은 정관장만의 철저한 품질기준에 합격한 원료들만 사용한다. 100% 계약재배를 통해 수확된 인삼은 290여가지의 안전성 검사를 7회에 걸쳐 합격해야만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화애락본'은 관리가 까다로운 미국으로 수출되는 등 제품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이 제품은 6년근 홍삼을 기본으로 전통 식물 소재인 당귀, 작약, 대나무잎, 복령, 백출 등의 부원료를 조화시킨 제품으로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성인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화애락진'은 6년근 홍삼에 녹용 및 당귀, 작약 등의 자연 소재를 담았다. 또 식물성분들인 대두, 석류, 크랜베리, 레몬밤 등의 부원료를 추가해 액상 파우치 형태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화애락큐'는 정관장 6년근 홍삼을 주원료로 해 고품질의 전통 원료인 복령, 백출, 작약, 당귀, 대나무잎 등의 부원료를 결합했다. 먹기 쉽고 휴대성이 좋은 타브렛 제형으로 편의성도 높였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열흘이라는 긴 휴식 기간이 주어지면서 벌써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보름달처럼 부풀고 있다. 유통업계는 긴 휴일 선물을 나누고 정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들뜬 마음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올 추석은 긴 연휴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다 먹거리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통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했다.

우선 긴 연휴에 대비해 미리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백화점과 마트 등은 예년과 달리 추석 선물 행사 초반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전예약과 본판매 모두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여 업계는 추석 매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실속형 상품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프리미엄 세트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햄 세트, 생필품 세트 등 저가 실속 선물이 판매 상위 품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먹거리 불안'에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친환경 상품들도 예년보다 수요가 늘고 있다. 싱글족이 늘면서 혼자 추석을 보내려는 '혼추족'을 겨냥한 상품의 등장도 예년과 차별화한 올 추석 분위기 중 하나다.

하지만 아무리 추석 풍경이 달라져도 명절에 빠지지 않는 단골 테마는 바로 '효'다. 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콘셉트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모님을 위한 선물 세트만은 변함없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추석만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내수 회복의 바람을 담은 유통업체들의 추석 선물을 소개한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마트 | 실속세트

가성비 甲 '노브랜드'로 실속 챙기세요



이마트는 올 추석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노브랜드' 선물세트 10종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499'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이마트는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이 작년 설 67.1%, 추석 69.9%, 올해 설 7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실속세트 강화로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브랜드 세트 주요 상품으로는 건블루베리, 아몬드 등 8가지 건과·견과로 구성된 '노브랜드 건과, 견과 선물세트'(4만9800원), 참치통조림(150g) 6개와 리얼팜(340g) 3개로 구성된 '노브랜드 통조림 세트'(1만7880원), 인기 있는 노브랜드 과자로 구성한 '노브랜드 스낵박스'(9800원) 등이 있다.

이마트는 소비자의 다양해진 취향에 맞춰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우선 반값 홍삼의 성공에 힘입어 올 추석에는 '피코크 홍삼정 투엑스'(18만9000원)를 선보인다.

피코크 프리미엄 햄 피캠으로 구성된 '피코크 피캠세트 1호'(4만9800원)도 새롭게 출시했다. 이외에 활용도가 높은 돼지고기와 이에 잘 어울리는 명이나물, 부지깽이를 하나로 구성한 '칼집삼겹살, 목심+명이나물+부지깽이 컬래버 세트'(7만5000~9만 원)도 판매한다.

홈플러스 | 컬래버 세트

'명품간장+돌김' 프리미엄 상품 하나로



홈플러스는 올 추석 이색 컬래버 세트를 선보인다. 단독 상품으로도 구하기 쉽지 않은 프리미엄급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 수요자의 만족도를 배가시킨다는 전략이다.

'명품간장 곱창돌김 세트'(카드 할인가 4만1930원)는 매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채취할 수 있는 귀한 곱창돌김과 360년 종가의 씨간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전통식품 명인 제35호 기순도 명인이 직접 만든 최고급 간장을 묶었다.

최근 우리나라 김이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다양한 고객층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요리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위한 컬래버 세트도 내놓았다.

'건강을 담은 표고버섯 혼합 세트'(훼밀리카드 회원 할인가 4만9500원)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 좋은 표고버섯과 함께 카카오닙스, 아로니아 등 최근 요리 재료로 각광 받는 각종 분말류를 한데 모았다.

아울러 인기 브랜드 와인을 고객 취향에 맞게 골라 세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베스트셀링 와인 DIY 세트'(상품별 1만4900원부터), 청정 호주산 양고기 중에서도 어깨 부위가 아닌 등심 부위의 부드러운 육질을 엄선한 '램렉 스테이크 냉동세트'(9만9000원) 등 다양한 이색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동국제약 | 인사돌 플러스

생약성분 '후박나무' 추가 항균 효과 업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의 잇몸 건강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치아는 잇몸과 치주인대, 치조골(잇몸뼈)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의 핵심은 '잇몸 건강'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붓고, 피나고, 시리고, 들뜨고, 흔들리는 등 잇몸병 증상이 시작되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잇몸병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욱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도 도움이 된다.

'인사돌 플러스'는 동국제약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연구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연구팀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10여년 간에 걸쳐 개발한 국내 최초의 특허 받은 잇몸약 복합제다.

특히 생약성분인 '후박나무 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해 항염, 항균 효과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인사돌 플러스'를 복용하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 전후 잇몸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한성기업 | 크맥컵 3종

맥주 안주 딱 좋은 크래미 한입에 쏙~



한성기업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만난 친척들과 가볍게 한잔할 때 좋은 안줏거리로 신제품 '크맥컵 3종'을 선보였다.

'크맥컵'은 컵 용기로 구성돼 있어 내용물인 크래미는 맥주 안주로, 컵은 간편하게 맥주 컵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한성기업은 크래미가 오랜 기간 맥주 안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크맥(크래미+맥주)'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야외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크맥컵 3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크맥컵 3종은 각각 화이트 치즈가 듬뿍 들어간 크맥컵 치즈, 살코기 참치가 들어간 튜나, 담백한 크래미 스프레드를 크래커 위에 올려서 즐기는 크맥컵 카나페로 구성했다.

이달 초 출시한 크맥컵 카나페는 전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크맥컵 카나페는 이미 MD들 사이에서 맛을 인정받고 있어 출시 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기업은 "크맥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크래미를 활용한 안주와 간식 레시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 | 황작

Rg3·사포닌 듬뿍 든 홍삼 직장인도 주부도 "좋아요"

롯데제과 헬스원은 프리미엄 홍삼브랜드 '황작'을 추석 선물로 선보였다.

황작은 '황작홍삼농축액', '황작활웅후애', '황작홍삼젤리', '황작수-환세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혈관 건강을 위한 '혈압컨트롤엔N나토키나제'도 있다.

헬스원 황작은 품질 좋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다.

롯데는 특허받은 공법으로 Rg3 함량을 자사 홍삼 농축액과 비교해 약 5배 높이고, 사포닌 함량도 1.7배 높였다. Rg3는 홍삼 한 뿌리에 극소량만 함유돼 있는 물질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탁월한 성분이다. Rg3와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 있다 보니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제품이다.

중장년층 소비자들과 홍삼 마니아들 사이에 일찌감치 입소문이 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학생, 직장인, 주부 등도 많이 찾고 있다.

헬스원이 선보인 '혈압컨트롤엔N 나토키나제'도 명절 선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인 나토키나제는 자연발효 식품인 '낫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건강식품이다. 이 제품은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

설탕·인공첨가물 넣지 않은 '건강 주스'



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델몬트 주스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국내 1등 주스 브랜드 '델몬트' 제품 중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제품 위주로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다. 실속 있는 소비 성향을 반영한 8000원부터 1만4000원 사이의 가격대로 구성한 총 7종의 중저가 세트다. 한국 전통의 멋을 살린 보자기 및 보석함 이미지 등을 활용한 고급 포장재를 사용해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

델몬트 트루주스 병 선물세트는 건강한 주스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설탕과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과일 자체의 천연당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제품으로 구성됐다. 제주감귤만을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냈다.

델몬트 페트 선물세트는 1.5ℓ 용량 제품으로 한국 전통의 멋이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의 포장재로 꾸몄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번에 마실 수 있는 180㎖ 소용량 병에 담은 주스들로 구성했다. '오렌지·포도', '망고·토마토·매실·알로에', '알로에·감귤·포도·매실', '감귤·토마토·매실·사과' 세트(각 12본입) 등 총 4종이다.

애경 | 케라시스 르누아르 컬렉션

우리집 욕실서 만나는 르누아르 명작



생활뷰티기업 애경은 명화선물세트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올 추석에는 '케라시스 르누아르 컬렉션'을 내놓았다.

애경은 디자인경영을 접목해 선물세트에 명화를 적용해왔다. 기존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고정된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이번 컬렉션은 르누아르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레느 깡 단베르 양의 초상'을 선물세트 디자인으로 적용했다. 사랑스럽고 반짝이는 소녀의 초상에서 전해지는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행복을 선물로 전하고 싶은 이에게 안성맞춤이다.

케라시스 르누아르 컬렉션은 선물세트 구성품마다 맑고 청아한 이레느 깡 단베르 양의 초상을 삽입해 인테리어 효과로도 탁월하다.

또 9000원대의 '케라시스 리미티드 에디션'과 2만 원대의 '케라시스 아트 컬렉션' 등 총 2종의 실속 있는 구성으로 출시됐다.

애경은 2007년 구스타프 클림트, 마티스의 작품을 선물세트 패키지 디자인으로 적용해 저렴하고 서민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했으며 이후로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 반고흐, 모네, 칸딘스키 등의 명화를 통해 받는 사람의 감성을 고려한 명화선물세트로 인기를 끌었다.

동원 F&B | 선물세트 200여 종

아빠들 좋아하는 참치캔 아이들이 잘 먹는 양반김

동원F&B가 추석을 맞아 실속 있는 가격의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 종을 준비했다.

동원은 참치캔과 캔햄, 식용유를 중심으로 복합선물세트를 구성했으며 전통적인 인기 상품인 '양반김선물세트'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양반죽선물세트', '동원포차선물세트' 등도 마련했다.

동원은 5만 원 이하 실속 복합세트인 '동원 튜나리챔 100호'와 '동원스페셜 5호' 등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홍삼전문브랜드 '천지인'과 건강식품 브랜드 'GNC', 자연건강식품 '하루기초'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세트도 준비했다. 최근 론칭한 '하루기초'의 경우 국내 유명 산지의 원료로 만든 진액 5종과 건강환 2종이 주력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동원의 온라인 쇼핑몰 동원몰에서도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동원몰이 특별 제작한 '동원 빅참치 선물세트'는 동원 참치 통조림 모양의 틴케이스가 함께 제공되는데, 틴케이스 안에는 주유 상품권 100만 원 등이 걸린 경품 이벤트 응모권이 포함돼 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기프티모아'를 활용하면 무거운 명절 선물세트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 백년백세관절

소나무서 추출… 갱년기 관절건강 개선



비타민하우스의 '백년백세관절'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백년백세관절은 주원료로 MSM(디메틸설폰)을 함유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제품이다. MSM은 소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식이유황 성분으로 관절의 연골, 인대, 연결조직의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백년백세관절에는 MSM이 2000mg 함유돼 있다. 이 밖에도 연어코연골추출물(프로테오글리칸, 비변성2형콜라겐)을 비롯해 해조칼슘, 비타민D3 등이 함유돼 성분을 채웠다. 비타민하우스 측은 관절 건강 개선이 필요한 노약자나 갱년기 여성, 관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특히 오랜 노하우를 거쳐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GMP(제조·품질관리) 지정업체에서 제조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이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 근골격계 기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백년백세관절은 소중한 부모님의 관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타민하우스의 백년백세관절은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 약국에서 판매한다.

SPC삼립 | 비어슁켄 선물세트 8종

굽지 않고 차갑게 먹어도 좋은 '콜드햄'



SPC삼립의 육가공 전문 브랜드 그릭슈바인이 추석을 맞아 '비어슁켄 선물세트' 8종을 출시했다.

그릭슈바인 캔햄은 137년 전통의 육가공 전문기업 쉐퍼(Schafer)와 기술 제휴를 통해 탄생한 제품으로, 적당한 기름기를 머금은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쫀득한 뒷다리살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육즙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어슁켄은 '맥주처럼 많이 먹거나 맥주와 함께 먹어서 즐거운 햄'이라는 뜻으로, 굽지 않고 차갑게 먹어도 좋은 콜드햄 제품이다. 이번 비어슁켄 선물세트는 '스페셜 선물세트' 2종을 비롯해 캔햄과 카놀라유가 함께 들어 있는 '복합세트' 4종, 비어슁켄 캔햄과 그릭슈바인 캔햄을 다양하게 구성한 '특 선물세트' 2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SPC삼립 마케팅 담당자는 "그릭슈바인 추석 선물세트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고품질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전년 대비 15% 이상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그릭슈바인 선물세트와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어슁켄 선물세트'는 전국 슈퍼마켓, 편의점 GS25나 SPC GFS의 온라인 쇼핑몰인 '하이카페몰(www.hicafemall.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미약품 | 제텐-비

고함량 비타민B로 명절 스트레스 싹~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이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명절증후군으로 이어지기 쉽다.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비타민B 섭취가 필수적이다. 비타민B는 에너지대사를 활성화해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한미약품의 '제텐-비'는 고함량 비타민B 복합제이다. 제텐-비에는 피로 해소와 에너지 대사 활성화, 빈혈 예방, 뇌기능 개선 등에 효과적인 비타민B군 10종은 물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C·E가 균형 있게 함유돼 있다.

특히 이 제품에는 미강유(쌀겨기름)에서 추출한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됐다. 이 성분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위장 신경증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 술, 담배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의 건강 유지에 최적화된 종합 비타민제로 평가받는다.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 코팅정으로, 목 넘김이 쉽고 비타민B 특유의 냄새도 최소화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에 지친 현대인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제품"이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복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지킴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제화 | 패션 아이템

아버님은 리갈, 어머님은 브루노말리 백



금강제화가 추석 선물로 좋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내놓았다.

남성을 위한 선물로는 금강제화가 최근 선보인 리갈 201d가 제격이다. 리갈 201d는 신사화인 리갈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세련미가 느껴지는 소가죽과 고급 수제화 제법인 굿이어 웰트 방식으로 만들되 세미 드레스 라인으로 구성했다. 디자인 역시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U팁과 Y팁에 캐주얼 감성을 더해 청바지, 면바지, 슬랙스 등 다양한 캐주얼 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에게 선물할 아이템을 고민 중이라면 브루노말리 그라노 핸드백을 추천한다.

브루노말리 그라노는 이탈리아어로 밀이나 보리, 쌀 등 곡물의 '낟알'이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최고급 소가죽 소재인 나노 그레인 엠보를 사용했다. 이 소재는 가죽 전체가 좁쌀 무늬 형태로 촘촘하게 채워져 생활 스크래치로부터 강하다. 또한 복원력이 우수한 고탄력 스펀지의 퀼팅 소재로 우수한 내구성도 겸비했다.

이밖에 금강제화에서는 미국 정통 골프 브랜드인 PGA TOUR의 골프웨어와 골프화, 라이프스타일 캐주얼 브랜드인 버팔로의 캐주얼웨어,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과 기술로 주문 제작되는 비제바노 신사복도 만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 려 두피케어 3종

손상된 모발·기름진 두피 건강 머리결로 가꾸세요

아모레퍼시픽 두피케어 브랜드 '려'는 손상된 모발, 기름진 두피, 힘없는 모근 등 다양한 헤어 고민을 케어해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완성시켜주는 추석 선물세트 3종을 제안한다.

'함빛 극손상케어' 라인으로 구성된 '려 스페셜 함빛모 세트'는 동백, 오미자, 석류 등 세 가지 붉은 성분의 '레드 콤플렉스'와 발효 콩 성분으로 모근부터 모발 곳곳까지 3중 케어를 제공해 잦은 스타일링으로 손상된 모발에 안성맞춤이다.

사계절 내내 지성 두피로 고민한다면 '려 스페셜 청아모 세트'가 적합하다.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발효박하액 성분과 솔잎 추출물이 찝찝한 두피를 산뜻하게 케어해주는 '청아 두피딥클렌징' 라인으로 구성됐다. 모공 속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우뭇가사리 추출물과 자연 유래 녹색 알갱이가 스케일링한 듯 개운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라네즈는 촉촉한 피부를 위한 라네즈의 워터뱅크 모이스처 크림 기획 세트를 추천한다.

라네즈의 워터뱅크 라인은 하이드로 이온 미네랄 워터가 피부에 빠르게 전달돼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피부에 하루 종일 수분을 리필해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특히 녹아들 듯 부드러운 사용감이 돋보이는 워터뱅크 모이스처 크림은 피부에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돼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LG생활건강 | 화장품세트

피부 탄력 찾아주는 '숨 시크릿 리페어'





LG생활건강은 후, 오휘, 숨37°등 고품격 화장품 브랜드로 추석 선물세트를 꾸몄다.

궁중화장품 브랜드 '후'는 궁에서 피는 모란꽃과 나비, 왕후의 떨비녀를 모티브로 한 '후 천기단 왕후세트'를 출시했다.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브랜드 '오휘'는 자연의 생명력으로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피토 바이탈 4종 세트'를 선보인다.

자연·발효 화장품 '숨37°'는 피부의 탄성을 찾아주는 '시크릿 리페어' 라인을 세트로 구성했다. 핵심 기술인 '피부 탄성 스프링'은 피부 탄성 섬유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탄력저하, 주름 등의 피부 노화 징후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20만 시간의 발효로 얻은 그루지안 발효 원액에 그리스 키오스섬에서 찾아낸 성분인 '로얄 매스틱 레진'이 더해져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더마화장품 CNP Rx는 차앤박 피부 전문가의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담은 'CNP Rx SS프로그램 세트'를 출시했다. 차세대 성분 'PHA COMPLEX'를 함유했다.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 테르비나LX'는 재조합 태반 핵심성분을 함유해 건강한 피부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프리미엄 라인이다. 올 추석에는 테르비나LX 라인의 스킨, 에멀전, 크림 정품 외에도 농축된 성분을 담은 테르비나 앰플 오일과 세럼이 내장된 3종 기획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국순당 | 한가위 우리술세트

달콤 은은한 풍미 프리미엄 증류주 '려'



국순당은 추석을 맞아 프리미엄급 고구마 증류소주 '려(驪)' 선물세트 및 차례주 '예담', 자양강장 세트 등 실속 있는 술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 이번 구성에는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진 증류소주 선물세트가 전용 잔과 함께 새로 포함됐다.

증류소주 려(驪)는 여주산 고구마를 상압증류한 후 옹기에 담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수확한 지 일주일 이내의 고구마만을 취급하며 쓴 맛을 내는 양쪽 끝을 절단해 고구마 특유의 달콤하고 은은한 풍미를 주는 상품이다. 알코올 도수는 25%로 2병과 전용잔 2개가 한 세트에 포함돼 2만9000원에 판매된다.

차례주 예담은 '종묘제례'에서도 10년째 전용 제주로 사용되고 있는 명품이다. 주정을 섞어서 빚는 일본식 청주와 달리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주로 알코올 도수는 13%이다. 이번 기획에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1800ml(1만1000원) 대용량 제품과 1000ml(6800원), 700ml(5000원) 등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발효 한방약주인 '자양 백세주'와 국순당의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소나무 마디로 빚은 '송절주' 등이 추석 선물세트로 마련돼 있다.

롯데주류 | 백화수복

73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롯데주류는 올 추석을 맞아 선물용으로 73년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청주 '백화수복'을 내놨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우리 전통술로, 국내 차례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제품이다.

국산 쌀을 100% 원료로 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잘 살렸다. 또 롯데가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친 효모를 이용해 '백화수복' 특유의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명절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을 700㎖, 1ℓ, 1.8ℓ 등 3가지로 구성해 소비자 편의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700㎖ 5200원, 1ℓ 7100원, 1.8ℓ 1만1000원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73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한 쌀로 정성껏 빚은 제품"이라며 깊은 향과 풍부한 맛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기에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 일품진로

'언더록스'로도 즐기는 참나무통 숙성 소주

하이트진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통 숙성 프리미엄 소주 '일품진로 선물세트'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일품진로'는 1924년부터 이어져온 소주명가 진로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숙련된 양조 전문가들이 순쌀 증류원액을 참나무 목통에서 숙성시킨 고품격 소주다. 이번 선물세트는 일품진로(375ml) 2병과 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록스 잔 2개로 구성됐다.

일품진로는 25%의 알코올 함량으로 부드럽게 녹아드는 은은한 향이 생선회와 잘 어울리며 깔끔한 목 넘김과 오크향의 여운은 육류의 기름진 맛과 조화를 이뤄 일품이다. 탄산수나 라임·시나몬 등을 더해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다.

하이트진로는 상품의 외관에도 신경썼다. 병 모양은 사각형태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서체는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로 교체해 부드러움을 표현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장은 "일품진로는 목통 숙성 원액으로 만든 증류식 소주로 깊은 정성과 소장 가치를 더한 프리미엄 선물로 매년 출시 때마다 조기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다"며 "가격 부담은 낮추고 상품 가치를 높인 일품진로 선물세트로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품진로는 이마트 일부 지점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2만9800원이다.



폴텐코리아 | 폴텐파마

伊 명품 탈모샴푸세트, 합리적 가격



이탈리아 명품 폴텐 샴푸가 추석을 맞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9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탈모 전문 브랜드 폴텐파마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탈모샴푸 및 손상모샴푸와 컨디셔너를 조합한 6종의 추석선물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손상모샴푸와 컨디셔너 세트는 36%를 할인, 5만 원 이하로 가격대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석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많은 화학제품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텐파마 추석선물세트는 합성계면활성제 SLES, 파라벤, 미네랄오일, 실리콘, 파라핀왁스 등 석유계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샴푸라 부담없이 안심하고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다.

남성 모발성장물질 트리코사카라이드, 여성 모발성장물질 트리칼고실의 특허를 보유한 폴텐파마는 50여 년 폴텐 앰플, 헤어팩 등을 통해 세계 탈모인들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탈모치료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폴텐공식 쇼핑몰을 운영 중인 밸리브 권효상 대표는 "탈모치료를 원하는 핵심 고객층은 20~30대 젊은 청년층"이라며 이들의 탈모원인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누, 샴푸, 화장품,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생리대 등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화학성분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소량생산을 지향하는 폴텐파마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폴텐샴푸로 셀프탈모치료 비법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문해야 한다. 주문한 제품은 29일까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폴텐 추석선물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아사가오 골프 | 리미티드 200퍼터

미스샷 걱정?…최상의 퍼팅감 자랑

드라이버와 세컨드 샷까지 잘 치고 그린에 무너진다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골퍼들은 퍼터를 탓한다. 그래서 퍼터 구입이 잦다. 1타라도 줄일 수 있다면, 3퍼트만 안하는 퍼터가 있다면 무조건 바꾼다.

'초고반발' 명품클럽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아사가오(www.asagaogolf.co.kr·대표이사 이민)에서 직진성이 뛰어나 홀에 잘 들어가는 퍼터를 새로 선보였다.

우아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의 핸드 메이드로 제작한 아사가오 '리미티드 200퍼터'다.

골드, 블랙, 레인보 컬러로 각각 20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2.5도의 낮은 로프트 각을 적용해 퍼트 시 볼이 미끄러지는 스퀴즈 현상과 임팩트 순간에 튀어 오르는 것을 최대한 줄여준다. 또한 롤링 페이스 공법(R.F.M)으로 볼을 스핀량을 증가시켜 우수한 직진성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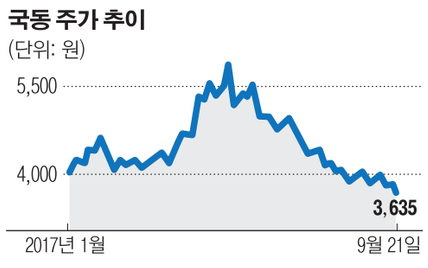
최상의 소재인 카본 스틸을 사용한 아사가오 리미티드 200퍼터는 용접 없이 제작하는 '원 블록(One Block)' 공법과 375g의 헤드 중량으로 기존의 블레이드형 퍼터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운 헤드 무게감으로 롱퍼팅과 짧은 퍼팅 시 미스샷을 줄여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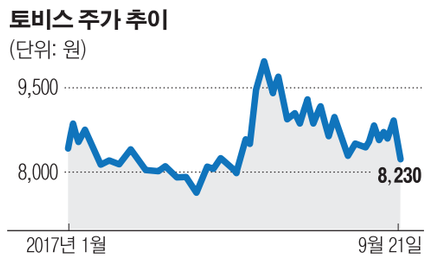


아사가오 골프는 전 리듬체조 선수였던 스포테이너 신수지를 모델로 발탁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및 보그너-MBN 여자오픈에 공식 협찬했다.

달러결제 수출株, 換率 수혜 볼까

美 연준 긴축 결정에 强달러
원달러 환율 1133원 넘어서
의류 수출 '국동' 실적개선 기대
카지노용 게임기 개발 '토비스'
신흥국 중심 규제완화에 수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결제 수출주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율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유자산 축소를 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준은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와 함께 12월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212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한때 1100원 붕괴 위기까지 직면했었다. 그러나 5월부터 환율이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날 연준 발표로 급반등, 20일 1달러당 1133원을 넘어섰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드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 뒤, 원달러 환율 예상 레인지는 1126~1138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국동과 토비스 등 달러결제 수출주들이 부각되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의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국동은 모든 매입매출이 달러로 거래된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스마랑 공장에 15개의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가면서 매출 확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여기에 MLB를 생산하는 마제스틱과 파나틱스 등이 신규 바이어로 추가되면서 OEM 의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수혜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워크웨어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산업용 모니터 가운데 카지노용 게임기를 개발, 공급하는 토비스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98%에 이른다. 토비스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매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카지노 모니터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톱티어 중 하나인 아리스토크랫(Aristocrat)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고, 차별화된 카지노 게임기 개발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작년부터 일본 등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을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전 샘플 발주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 시장용 카지노 모니터 수출 물량이 작년 연간 수주액을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카지노협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93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80억 유로(약 10조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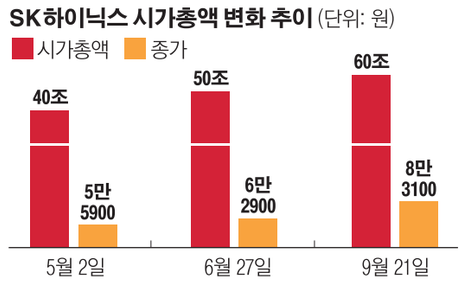
이 외에도 단조부품 생산, 공급업체 태웅과 디지털셋톱박스 업체 가온미디어 역시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달러 결제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선별적인 투자가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성시종 기자 ssj@



파죽지세 SK하이닉스… 시총 60조 돌파

도시바 메모리 인수 기대에 3개월새 10조↑
주가도 2.97%오른 8만3100원 '사상최고치'



SK하이닉스 주가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호조에다, 도시바 메모리 인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투심을 흔들고 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2400원(2.97%) 상승한 8만3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날 0.74% 오르며 장을 시작한 주가는 장 초반 상승폭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며 장중 한때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60조4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27일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10조 원을 추가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이날 순매수세로 전환, 하루 만에 141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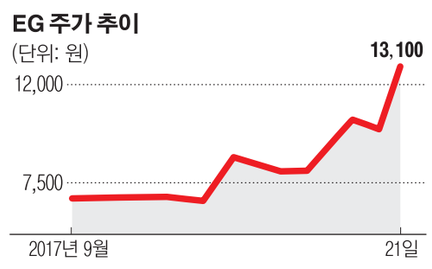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도시바 반도체 인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일 일본 언론은 도시바가 이사회를 열어 도시바메모리를 한미일 연합에 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날 공시를 통해 "도시바 이사회가 SK하이닉스의 파트너인 배인캐피탈(Bain Capital)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바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은 아직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남은 만큼, 향후 딜 프로세스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한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400% 이상 증가한 3조8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박지만의 EG, 일주일 새 두배 뛴 이유는

〈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대전에 수소차 탑재 소재 생산부지 협의"
어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1만3100원
1주일새 97%↑…'최순실 사태' 이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등재돼 '박근혜 테마주'로도 불리는 코스닥 상장사 EG가 최근 수소차 테마로 급등하고 있다. EG의 주가는 최근 7거래일간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급락하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EG는 가격제한폭(29.70%)까지 오른 1만3100원으로 마감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주가가 약 1주일 만에 96.99% 치솟은 것이다. 이날 EG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24일(1만60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EG의 주가는 10월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폭락한 바 있다.

EG의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은 증시의 '핫이슈'로 떠오른 수소차 테마다. EG는 12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9.9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18일(15.04%)과 19일(10.93%)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주가 급등과 관련 조회공시를 통해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용지 내에 수소차량 탑재용 고체수소저장소재 생산공장 부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G는 2015년 고체수소저장소재개발 관련 국책 과제에 선정돼 현재 3차년도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일찍부터 수소연료 사업에 힘을 쏟는 중이다. 회사 측은 2019년에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수소차량 탑재용 저장소재를 조기 양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유일의 첨단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한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은 지난 10거래일 연속 EG를 순매도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美·北 군사적 긴장감에 외국인·기관 매도세

이주의 수급동향

각각 1112억·2764억 팔아…개인은 2548억 매수

9월 넷째 주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으며, 21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코스피 지수에 부담감을 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순매수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월~목)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총 1112억 원, 27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54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대규모로 팔아치운 종목은 한국전력(860억 원)이었다. 이어 SK하이닉스(708억 원), LG화학(540억 원), SK텔레콤(442억 원), LG이노텍(388억 원), 삼성전자우(326억 원), 현대모비스(312억 원), 하나금융지주(26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3억 원), 팬오션(248억 원) 순으로 덜어냈다. 외국인들의 상위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면 전자, 반도체, 화학 등의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분야와 비슷한 종목들을 팔아치웠다. 삼성전자(945억 원)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고, 삼성SDI(701억 원), LG디스플레이(652억 원), 엔씨소프트(518억 원), LG화학(329억 원), KT(306억 원), LG전자(297억 원), 삼성전기(263억 원), 현대차(252억 원), SK하이닉스(219억 원) 등을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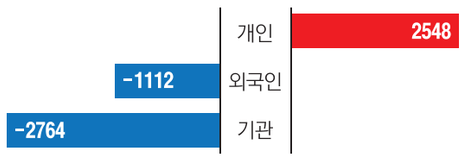
이처럼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이어간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군사적 긴장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도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	한국전력	860	6	삼성전자우	326
2	SK하이닉스	708	7	현대모비스	312
3	LG화학	540	8	하나금융지주	264
4	SK텔레콤	442	9	삼성바이오로직스	263
5	LG이노텍	388	10	팬오션	248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9월 18~21일)



롯데에 안긴 보바스병원…回生 날갯짓

서울회생법원,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호텔롯데 무상 출연금·대여금 활용해 채권 변제 마무리
시민단체 "병원 영리화 우려" 인가 불복 즉시항고 낼 듯

늘푸른의료재단 소속 보바스기념병원이 결국 롯데의 품에 안겼다. 병원 측은 빠르게 채무 변제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내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방침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19일 열린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78.77%의 찬성을 얻어 이미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첨예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가 기일을 별도로 잡았었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전임 이사장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가격차로 따돌리고 지난해 10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의 무상 출연금과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을 곧바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실제 회생 종결까지는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바스병원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소재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병원의 영리화 소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들어오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 회생 전문 회계사는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기업 전체 채권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바스의 경우 공탁금만 40억 원에 달한다"며 "즉시항고를 하고도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바스병원 전에도 2012년 한영의료재단을 이사회 구성권 매각 방식을 통해 회생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엠게임, 가상화폐 사업 '첫 삽'
코인숲·페이또와 MOU 체결

〈가상화폐 채굴전문기업〉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채굴·거래소 운영 진출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기대"



(왼쪽부터) 권이형 엠게임 대표, 코인숲 유보라매 대표, 페이또 유종호 대표. 사진제공 엠게임

엠게임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 엠게임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 채굴 전문기업 코인숲,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또와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 운영 등 가상화폐 관련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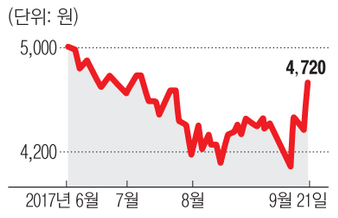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엠게임은 코인숲, 페이또와 공동으로 가상화폐 채굴 관련 사업과 거래소 운영 사업에 나선다.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또에 엠게임 게임 포털을 활용하는 다양한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채굴 관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금융 분야뿐 아니라 게임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혹은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는 전략이다.

코인숲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14개 공장 1만여 개의 채굴기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 채굴업체다. 페이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올해 하반기 중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랜 기간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엠게임의 경험과 노하우로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활성화 마케팅 분야에서 윈윈 전략을 기대한다.

엠게임 주가 추이
(단위: 원)



권이형 엠게임 대표이사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성장동력으로 가상화폐 분야에 진출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관광 활성화' 두 팔 걷은 글로벌텍스프리

서울관광마케팅과 업무 협약
시즌별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가 서울관광마케팅과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글로벌텍스프리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과 함께 서울시 관광 홍보활동 및 시즌별 이벤트 추진에 대한 여러 업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와 소비세를 공항이나 매장에서 환급해주는 세금 환급 서비스 전문업체다. 19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관광마케팅과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서울로7017, 명동 관광안내센터, 명동 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 비치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당사의 가맹점 소개 및 가맹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는 이달 20일 서울관광마케팅과 서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글로벌텍스프리

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 관광 및 MICE(Meeting·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관광 마케팅 전담기구다. 한류 관광, 의료 관광, 도보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활동을 기획하고 서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관광마케팅 관계자는 "시즌 이벤트 진행 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텍스프리와의 협력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원 글로벌텍스프리 대표이사는 "당사의 명동 상권 내 택스리펀드 가맹점 점유율은 50%에 달하는 등 서울은 글로벌텍스프리의 지배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에이치엘비파워 印 ESS 시장 진출

SGPL과 소형 전기차 협력 MOU

에이치엘비파워가 인도 전기차 배터리와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 진입한다.

에이치엘비파워는 인도의 에너지·교통 스마트 솔루션 회사인 Smart Grid Pvt. Ltd.,(SGPL)와 ESS 공급 및 소형 전기차(오토릭샤)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도와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150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하는 뭄바이~아마다바드(505㎞) 간 인도 최초의 고속전기철도 사업과 관련됐다. SGPL은 이 구간의 해안가에 건설되는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주해 진행 중인데, 에이치엘비파워는 SGPL이 동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ESS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양사는 인도 도심의 필수 교통 수단이나 대기오염의 주범인 소형 3륜차의 전기차 전환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고,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종원 에이치엘비파워 사업총괄 대표는 "이번 SGLP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에 10㎾ 소용량 ESS 공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또한 소형3륜차인 오토릭샤의 전기차 전환 사업에 본격 진출할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창모터스, 신형 초소형전기차 내달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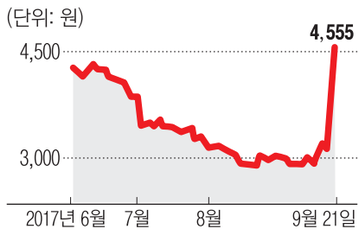
모델명 '다니고' 28개 항목 인증… 현대차와 협업 여부 관심

대창스틸 계열사 대창모터스가 초소형전기차 신모델 28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인증을 마치고 내달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USEV와 독점공급을 맺고 200여 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급 중인 대창모터스는 현대차와의 협업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대창스틸 계열사 대창모터스 관계자는 "28개 항목(유럽안전기준 168/2013)에 대한 초소형전기차 인증을 위한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다"며 "내달부터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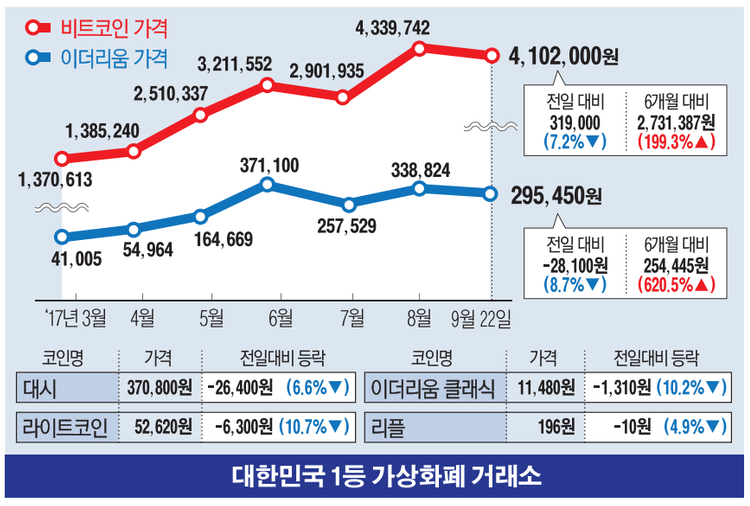
이어 "신차 모델은 '다니고'로서 경쟁차종이 르노삼성의 '트윗'이라고 덧붙였다. 다니고는 정부보조금 578만 원과 지차제 보조금 등으로 차량가격 1500만 원짜리를 400만~700만 원에 살 수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대창스틸 주가 추이
(단위: 원)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9월 22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370,800원	-26,400원 (6.6%▼)	이더리움 클래식	11,480원	-1,310원 (10.2%▼)
라이트코인	52,620원	-6,300원 (10.7%▼)	리플	196원	-10원 (4.9%▼)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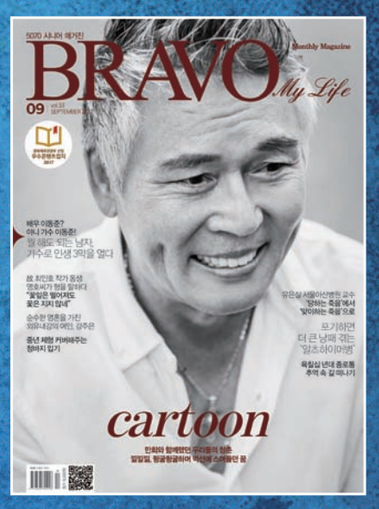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가 디지털에게 전하고 싶은 세번째 이야기

사물인터넷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축 습관까지 길러주는 세상
아이들의 저금통에는 수많은 꿈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그 희망까지 키워주세요

365일 36.5℃
KB 디지털금융